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문안비 <問安婢>

2부작 드라마

문안비<問安婢>란?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녀자들은 문밖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금지가 되는 남존여비의 관습에 얽매어 있었기에 출가한 여인은 설날이라 할지라도 친정에 문안을 갈수 없었다.

하여 양반가에선 주인아씨의 대역을 수행할 노비를 정하여 비단옷을 입히고 곱게 차려서 새해인사와 세배를 대신하도록 친정에 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안비이다.

기획의도

신분의 귀천이 분명하던 조선의 봉건사회에서 천한 노비가 설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천출로 태어난 신분의 굴레를 잊고 하룻동안 양반행세를 할 수 있는 문안비라는 설날의 세시풍속에 흥미를 느껴 시작하게 되었다.

더불어 의혹에 쌓인 역사적 사건 속에 인물들을 집어넣어 사실적이고 흥미로운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신분에 얽매어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두 남녀의 사랑과 복수, 그리고 점차 수렁으로 빠져드는 인물들의 갈등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역사적 배경.

조선의 20대 왕이며 장희빈의 아들이기도 한 경종은 즉위 4년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이복동생인 영조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당시 정치상황은 역사적으로 당쟁이 가장 치열하던 시절로 환국(換局)이른바 정권이 일시에 모조리 뒤바뀐다는 뜻으로 노론에서 소론, 다시 소론에서 노론으로 뒤바뀔 때마다 상대 당파에 대한 참혹한 보복과 숙청이 뒤따랐고 실권이 곧 죽음이었기에 정권을 잡기위한 당파싸움이 치열하였다.

또한 신하가 왕을 선택한다는 택군擇君 이 있었기에 소론은 경종을, 노론은 영조를 지지하는 정치기반세력이었다.

그러나 경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정권을 빼앗긴 소론은 경종의 독살을 주장하며 급기야 이인좌의 난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권력을 장악한 노론은 또다시 소론을 탄압하려 하였으나 영조는 당쟁의 폐해를 없애고자 탕평책을 내세워 노론과 소론을 관직에 고루 등용하여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려 하였다.

당연히 노론은 이를 탐탁치 않아했기 때문에 탕평책을 없애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나주벽서 사건과 토역정시사건이다.

1755년 을해년 영조즉위 31년.

전라도 나주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벽서가 나붙고

그 사건의 범인인 윤지란 자는 소론계 인사로 다른 소론계 인사들과 역모를 모의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조정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형한 뒤 이를 기념하는 과거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경종의 독살설을 쟁점화 한 투서가 나온다.

연이어 벌어진 두 가지 사건으로 영조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소론 대부분의 핵심 인사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형과 귀양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삭탈관직 또는 관직추탈이 되는 대규모 숙청에 희생되었다.

결국 탕평책은 무너지고 정권은 노론세력이 원하던 바대로 모조리 틀어쥐게 되는데.....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1755년 나주 벽서사건에 이어 토역정시사건으로 정국이 역모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

등장인물.

여술. <암살자>

과거 역모의 죄로 참수당한 합천부사 이시영의 아들.

사적선생의 도움으로 부모를 죽이고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오랜 세월을 준비해 왔다.

서린. <문안비>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여술을 따르며 그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품고 있는 여인.

두 사람 모두 애매한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있다.

묵현. <금부도사> (종5품)

노론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 소론계 인사들이 역모의 죄를 쓰고 끌려오게 되는데 그들 중엔 바로 아버지도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자 배후라 의심되는 좌의정 진이창 대감에게 접근한다.

진이창. <좌의정> (정2품)

노론의 실세이며 여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

능구렁이 같은 속셈을 숨기며 주위 모두를 이용하는 치밀한 인물이다.

희락.

검계 무리의 우두머리이며 여술의 둘도 없는 친구.

그 외

가도치, 백부장, 천달, 양서방, 자근노미, 상노아이.

곽주부, 내금위종사관, 가상의 인물 사적(詐敵)선생.

1부

프롤로그. s#1. 서린의 방 / s#2 호조참판 댁.

s#1

빗질 하는 여인의 단아한 손길이 경대 거울에 비춰진다.

s#2

문 앞을 기웃거리는 여술.

그 집의 종복인 자근노미가 나오자 은밀히 돈 꾸러미를 건넨다.

자근노미: 이거 참.... 번번이 이러면 내 염의없지 않은가.

여술: (이어서 물건을 내밀며) 잘 좀 전해주시요.

자근노미: 오늘은 직접 전하시게....

자근노미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여술.

s#1

분접시에 덜어낸 분가루를 물에 개어 누에고치 집으로 얼굴에 곱게 펴 바르는 여인.

백옥같이 하얗다.

s#2. 호조참판의 방.

참판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여술.

호조참판: 그간 네놈이 보여준 성의가 가상하여 어떤 놈인가 궁금하였다.

(여술이 가져온 물건을 밀어 넣자 능청스레) 이번엔 또 무엇을 가져온 것이냐?

여술: 곧 설이고 하여 인사나 여쭙고자 왔습니다.

펼쳐보면....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겸재 정선* 1676~1759년 조선의 산천을 독자적 화법으로 그려내어 진경산수화풍을 확립시킨 대표적 화가>

여술: 첨지중추부사 겸재 대감의 그림이옵니다.

올해는 동지중추부사의 반열에까지 오르신다하니 이게 어디 보통 그림입니까!

호조참판: 이..귀한걸....어찌....

여술: 더구나 여든이 넘으신 노부께선 기력이 쇠락하여 곧 그리되지 않겠습니까!

허면 그 값어치 또한 수배가 될 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겸재대감의 그림을 얻고자 혈안이랍니다.

호조참판: 앞날의 가치를 내다볼 줄 아는 장사치라....

여술: 보잘것없는 재주입니다.

s#1

달개비꽃잎을 태워 먹을 만드는 여인은 이를 홍화씨기름과 배합하여 눈썹 화장을 한다.

s#2

호조참판: 네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훤히 꿰고 있는 듯한데...네놈이 원하는 건 무엇이나?

여술: 송구스럽사옵니다.

호조참판: 광산업을 한 다 들었다.

내게 이런 귀한 그림을 가져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여술: 대단한건 아니옵고... 그저 단천의 은광 채굴권이나 얻고자 하여....

그리만 된다면 대감께 큰 이문을 안져 드리겠습니다.

호조참판: 그 정도야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

(기분이 좋은 듯 자근노미에게) 가서 술상을 준비하라 전하거라.

목구렁이 찰찰한 것이 내 이놈과 한잔 하며 담소를 나눠야겠다.

자근노미가 방을 나서자 참판과 단둘이 남게 된 여술, 씨익- 미소 짓는다.

s#1

드디어 단장을 마친 여인의 모습이 드리나면 정숙한 양반가의 여인네 서린이다.

헌데 뜬금없이 화승권총을 꺼내어 겨누는 서린.

돌연 표정이 차갑게 굳어진다.

s#2

참판, 술잔을 들이키며 다소 취기가 오른 듯 검제 그림의 산수를 보며...

호조참판: 참으로 대단한 절경일세.

(윙조리듯) 잔 들고 혼자앉아 먼 산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한들 이만큼이야 하겠느냐
비록 산이 말도 없고 웃지도 아니하지만 늘 못 견디게 좋구나.

여술: 고산선생의 시조로군요.

호조참판: 네깃 님이 고산선생을 아느냐?

여술: 고산선생께서 오랜 귀양살이로 속세를 떠나 산수와 벗하여
호젓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쓴 시조라 들었습니다.

호조참판: 그래, 그러하지...

여술: (표정 돌변하며 험오에 찬 웃음) 참으로 재미나지 않습니까!

천세를 쥐고 있다가도 자칫 방심하면 운이 좋아 유배지로 쫓겨 가겠으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 고관대작들께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겠습니다.

호조참판: (이맛살 찌푸리며) 네놈 하는 소리가 참으로 거북살스럽구나.

여술: 조정의 신료들이 서로를 모함하고 죽이는 일이 어디 어제 오늘일입니까.

대감께서도 당의 권력기반을 채우고자 수많은 이들을 그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호조참판: 닥쳐라 이놈! 능이 지나치다!!

여술: 검으면 회다하고 회면 검다하네
검거나 회거나 옳다 할 사람 하나도 없구나.
차라리 눈도 귀도 막고 듣지도 보지도 않으리라.

호조참판:

여술: (노려보며) 권세 다툼으로 반하는 자들의 꼬투리를 잡아 역당으로 몰아세우고
그자는 물론 그 자식들까지 몰락시키는 썩은 당쟁을 개탄하는 시조이옵니다.

호조참판: 이놈!! 듣자, 듣자 하니 헛바닥 뇌까리는 짓이 방자하기 짝이 없구나!

여술: (분노에 찬 시선으로) 함천부사 이시영을 기억하는가!
술해 전 네놈들의 간활한 술책에 역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참수당한
내 아버지를 기억하느냔 말이다!!

호조참판: 뭐...뭐시라...?!

여술: 그렇다.... 내가 바로 함천부사 이시영의 아들이다!

호조참판: (당혹감에 눈치 보며 옆에 놓인 보검을 잡고자 기회를 엿본다)

여술: 내 오늘... 남의 고혈을 짜내고 재산을 억탈하여 호의호식한 그 썩은 몸뚱이를 거두겠다.

틈을 노려 재빨리 보검을 집어 들고는 여술을 내려치는 호조참판. “이노오움~!!”

여술, 품안에 단검을 뽑아 전광석화처럼 참판의 목을 베어버린다.

목을 부여잡고 주저앉는 참판, 끝내 숨을 거둔다.

싸늘하게 쏘아보는 여술.

s#3. 서린의 방.

화승권총을 겨누던 서린은 이내 살기를 거두고는 비단옷을 벗는다.

방안을 보면.... 재색을 갖춘 양반가의 여인이 머물기엔 다소 누추한 곳이다.

타이틀 “문안비 <問安婢>”나왔다 사라진다.

s#4. 서린의 방문 밖.

어느새 노비의 차림으로 갈아입은 서린이 화장마저 깨끗이 지운 채 방문을 나선다.

양반 댁 아씨가 다가와....

아씨: 이곳에 있었는가? 내 한참을 찾았어.

서린: 저를 어찌하여....?

아씨: 그제....내 시어머님께 간청 들어 이번 설에는 자네를 문안비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올해는 끝순이를 보낸다 하시네.

서린: 저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천한 저를 그리도 생각해주시니 늘 감사할 뿐입니다.

아씨: 난 친정에 계신 아버님께 문안을 드리는 소임을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하였네.

서린: 마님께서 그리 결정하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저는 이만... (자리를 피한다)

s#5. 전옥소.

의금부경력이 옥사를 살피는데, 내금위군사들이 죄인들을 이끌고 쏘아져 들어온다.

금부경력: 이게 무슨 일인가?

내금위: 토역정시에 전하께 역심을 품은 자들의 그 배후요.

금부경력: 그 사건은 우리 의금부에서 조사키로 하였는데...

내금위: 이제부터 내금위에서 추국을 할 것이니 의금부군사들은 모두 물리시오.

금부경력, 죄인들 중 누군가를 알아보고 놀라.

금부경력: 아니...저분은.... 이보시게 저분이 누구지 아는가?!

저분은 우리 의금부 최도사의 부친이란 말이니!

내금위: 죄인일 뿐이오.

금부경력: 최도사의 성질을 듣지 못 하였는가?

그자는 나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의금부 꼴통이란 말이네!

이를 알면 눈이 뒤집혀서 칼을 뽑아 들 것이 뻔해.

내금위: 전하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그 누구도 죄를 면치 못 할 것이오.

금부경력: 최도사는 조선팔도에 당할 자가 없다는 천하제일 겁이네.

그가 부리는 자들 또한 다른 나장들과는 비교조차 적절치 않은 강군이야.

이 사태를 만만히 보아선 아니 돼.

내금위: 내금위 군사 백여명을 배치해두었소.

금부경력: 정령...피를 볼 셈인가!

군졸: (헐레벌떡 달려와) 나...나으리 최도사께서 오셨습니다.

금부경력: (뒷걸음질 치며) 난 모르겠네...자네들이 알아서들 하시게.

내금위군사들, 옥사입구 쪽에서 소란스레 몰려드는 소리에 바짝 긴장한다.

곧이어 수하들을 이끌며 들이닥치는 금부도사 묵현.

우직한 인상에 매우 성질이 나 있는 듯하다.

내금위: 멈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오.

묵현: (화를 억누르며) 또다시 앞을 가로막으면 베어버릴 것이다.

내금위: 전하의 어명을 반하겠다는 것이오?!

묵현: 난 내 아버지를 구하고자 할뿐이다.

서로를 노려보는 내금위와 묵현.

내금위군사들과 의금부군사들 간에도 팽팽한 긴장이 오간다.

목현: 아...아버님...(포승줄에 묶인 아버님의 모습에 이성을 잃고 달려든다) 아버님!!
내금위: 뭣 들 하느냐! 이자들을 당장 끌어 내거라!

내금위군사들이 목현을 힘으로 밀어내려들자 의금부군사들도 몸으로 밀어붙인다.
서로 뒤엉켜 밀고 당기며 힘겨루기 하듯 한바탕 아수라장인 좁은 옥사복도.

목현父: 그만들 두게!!

일순 멈춰서는 의금부와 내금위.

목현: (옥사 앞으로 달려가)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목현父: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목현: 아무렇지 않다니요. 이곳은 아버님께서 제실 곳이 못되었습니다!
소자, 지금 당장 이 문을 부셔서라도.....
목현父: 그만 두래도, 전하의 어명이라지 않느냐!
네놈이 우리 집안을 멸문의 위험에 빠트릴 셈이더냐!
목현: 하오나....
목현父: 나는 괜찮으니 가서 네 어미에게 전하 거라...내 걱정은 말라고.
목현: 아버님.....

분하고 원통하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목현.

s#6. 전옥소 밖.

목현이 수하들을 이끌고 전옥소를 빠져 나온다.

목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백부장: 그게 말입죠...
얼마 전 나주에서 역모를 조장하는 벽서가 나붙어 조정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잖습니까.
그 뭐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니, 동요하지 마라! 뭐 이런...
아무튼.... 그 벽서를 써 붙이고 참수당한 자는 소론이었습죠.
헌데 토역정시 과거시험에 어떤 놈이 또다시 그 같은 불손한 답안을 써냈지 뭐니까.
이번엔 전하께서도 크게 진노하셨다 합니다요.
하여 소론의 중신들 대부분이 역당의 무리로 간주되어 잡혀 들어 간 것이구요.
목현: 또다시 조정을 피로 물들일 셈인가!
백부장: 이러다 도사나으리도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으리께서도 소론이지 않습니까!
목현: 아버님을 포함한 자는 누구지?
백부장: 바로 그 토역정시를 감독한 노론의 참판대감입니다.
목현: (냄새가 난다) 노론의 중신이 소론의 중신들을 모함했다?!
참판 댁은 어디인가?

백부장: 현대 그게 말입니다....저....

s#7. 호조참판 태. 사건현장

화면 디졸브 되면- 참살당한 호조참판을 보며 난감해하는 묵현.

방안에 검재 정선의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나졸들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앞마당에선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자근노미.

백부장: 근자에 들어 조정 신료 몇몇이 의문의 참살을 당하였는데 그와 관련이 된 듯싶습니다.

묵현:

백부장: 저기... 여긴 한성부 관할입니다... 일 복잡해지기 전에 어여 가시죠.

묵현: (자근노미를 뵈며) 저자를 내 앞에 데려오게.

백부장: 네....? 하오나 우린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긴 한성부가....

묵현: 뒤쪽에서 기다릴 것이니 은밀히 데려와야 할 것이네.

묵현이 방을 나서려 하는데 한성부 관주부가 앞을 가로막는다.

관주부: 자네가 여긴 어인일인가? 여긴 자네가 와선 아니 되는 곳이네!

묵현: (무슨 사연이 있는지 시선을 피한다)

관주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 이곳에 나타난 것이야?

백부장: 주부나으리.... 저희 그저 지나다가 잠시 들여다 본 것뿐입니다요.

묵현: 방해할 마음은 없었네. 방해가 됐다면 내 사과하지. (밖을 나서려는데)

관주부: 사건이 있던 그 시각에 자네는 무얼 하고 있었는가?

묵현:

백부장: 설마... 우리 도사나으리를 의심하는 겁니까요?

관주부: 참판대감이 자네 아버님의 역심을 고하여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 들었네.
자네 성질이라면 그리하고도 남지!

묵현: (발끈) 역심이라니! 내 아버님은 역심을 품지 않았네!

관주부: (지지 않고) 허면, 돌아가신 내 아버님은 역당이어서 그리되시었는가!!

묵현과 관주부, 서로를 무섭게 쏘아본다.

묵현: 여보게, 자네와 난 어린 시절을 동문수학하며 한때는 막역지우가 아니었던가!

현대 어찌하여 날 의심한단 말인가!

관주부: (잠시 흔들리지만) 이제 우린 다르네.... 당파도,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를 뿐이야!

관주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묵현, 쓸쓸히 밖으로 사라진다.

s#8. 담벼락아래 은밀한 곳.

묵현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백부장이 자근노미를 끌고 나타난다.

묵현: 참판대감이 죽기 전, 누군가 찾아 왔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자근노미: 저는 아무것도 모르웁니다.

묵현: 네놈이 모를 리가 있나, 집안에 드나드는 이는 모두 네놈을 통해야만 들어갈 것인데.
주안상에 두 개의 잔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 대감의 손님이었을 것이다.

자근노미: (당황한 빛이 역력한)

묵현: 방안에 재물들은 참판대감이 그간 삼킨 뇌물이었을 테고.... 그자도 그리 접근 하였겠지.

자근노미: 아...아닙니다요...그곳에 재물은 모두 대감께서 수집한....

묵현: 대감이 소중화를 주창한단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청나라를 오랑캐라 여기고 그들의 문물을 하찮게 보는 대감이
청나라의 보검을 수집한단 말이더냐!!

백부장: 바른대로 실토정하지 않으면 물불기로 어육을 만들 것이야!

묵현: 왜 범인의 정체를 감추려 드는가?
참판대감이 재물을 탐한 사실을 덮고자 모르쇠를 하라더냐!

자근노미: 그...그자는 은광채굴원을 얻고자 겸재대감의 그림을 한 점 가져 왔을 뿐입니다.

묵현: 인상착의는 기억하겠지?!

자근노미: (뭔가 망설이며 찡찡댄다)

묵현: (번뜻) 거론치 말라 지시한 게 문중이 아니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자야! 맞지!
그러지 않고 네놈이 이리도 입을 다물 리가 없어! 누가 그리하라더냐?

백부장: (먹살을 부여잡고) 너 이놈 내가 누군 줄 알아! 의금부의 고문기술자 백부장이여!
압슬형부터 낙형, 단근형, 난장형, 태배형은 한성에서 나를 따를 자가 없어.

자근노미: 저... 실은 좌의정대감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묵현: 뭐라?

자근노미: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함구하라고....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원내는 더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황급히 줄행랑친다)

묵현: (망치로 맞은 듯 멍하여 혼란스럽다)

백부장: 좌의정대감이라면 노론의 실세인 진이창대감이 아니옵니까!
헌데 어찌 같은 당파인사가 참살을 당했는데 진범의 실체를 함구하라 하였을까요?

묵현: 소론을 역모의 배후로 몰아가는 이 같은 시국에 노론의 참판이 당했네.
더욱 아버님과 소론을 궁지에 몰수 있는 기회라 여겼겠지.

백부장: 그렇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저들은 우리가 이곳을 기웃거린 것을 꼬투리 잡아 역당으로 엮으려 들것입니다.
또한 조정의 원세를 틀어쥔 좌상대감이 연류 되어 있다면 더더욱 몸을 사려야지요!

묵현: 진경산수화는 구하기 힘든 그림이네...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 알아보게.

s#9. 서린의 주인댁 뒤뜰. (밤)

서린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우물물을 퍼내어 담는다.

아씨: (호들갑스레 달려와) 얘기 들었는가?

끝순이가 저잣거리 월짜패에게 행악질을 당해 팔이 부러졌다 하네.
하여 자네가 끝순이 대신 문안비로 가게 되었어.

서린:

아씨: 끝순이 한테는 안된 일이네만 자네에겐 잘 된 일이 아닌가.

자네가 날 대신하여 아버님께 문안도 드리고
하루라지만 양반행세하며 대접도 받으면 좋지 아니하겠는가!
(표정을 살피며) 헌데... 자네는 그다지 좋지 않은가 보우?

서린: 아니옵니다. 다만 저같이 천한계집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아씨: (미소 지으며) 자네의 신분은 비록 노비라 하나 난 자네를 천하다 여긴 적이 없네.
더구나 내게 고달픈 시댁살이를 견딜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벗이 되어주지 않았는가.

서린: 벗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아씨의 종녀입니다.

아씨: 가서 아버님께 내 안부를 잘 전해 주시게.

(돌아서며) 오랫동안 뵈지 못하였는데 어찌 지내시는지 참으로 그립구나...

서린: (아씨의 뒷모습을 무거운 얼굴로 바라본다)

s#10. 부엌. (밤)

서린이 아궁이에 물을 부어넣는데... 누군가 은밀히 접근해 온다.

어느새 서린의 등 뒤까지 다가선 누군가.... 여술이다.

이윽고 기척에 돌아서다 딱 마주치는 서린.

서린: (돌연 반가운 듯) 도련님... 언제 오셨습니까?

여술: (차가운 어투) 준비는 잘 하고 있느냐?

서린: 끝순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실 필요까지 있었습니까?

여술: 거사를 위해 네가 꼭 그 집 문안비로 들어가야만 했다.

서린: 하오나 끝순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입니다.

여술: 약한 소리 말거라! 난 가문을 멸문시킨 그자들에게 복수코자 긴 세월을 기다려왔다.
그들이 이 땅에 나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떠올리면 내속에 천불이 나서 괴로울 지경이야.

서린: 뜻하는 바를 이루면 그 고통도 멎는 것이 옳니까?
또한....(많은 뜻을 담아) 저는 어찌되는 것인지요?

여술:

서린: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이옵니까?

여술: (돌아서서 둔한 척 말 돌리며) 물론이지.....

난 신분과 상관없이 널 친누이처럼 아낀다.

하여 네가 일점혈육도 없이 소술한 나날을 보내는 것을 좌시하진 않을 것이야.

좋은 사내 만나, 자식도 낳고 다복한 가족을 꾸릴 때 까지 곁에서 도울 것이다.

서린: (대답이 실망스러운 듯) 그렇지요....

맘에 없는 말을 내뱉고는 쓸쓸해하는 여술.

그의 돌아선 어깨를 허공에 매만지며 사무치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에 목이 메는 서린.

여술: 이 일이 내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어라.

서린: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 사지에 계신데 어찌 저만 살겠다하겠습니까!

도련님과 동행이라면 저승문턱인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술: (마음이 무겁다) 뜻이 그러하다면 마음 굳게 다져야 한다.

서린: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잠시 몽클해지는 여술, 애써 태연한 척 사라진다.

그의 뒷모습을 애절하게 바라보며 시선을 떼지 못하는 서린.

s#11. 과거회상.

오래전인 듯.... 서린이 양반네 도령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도령: 네 이년!! 감히 사대부의 도포에 흙탕물을 튀고도 무사할 성 싶은 게냐!!

서린: 죄송하옵니다... (당황하며 흙탕물을 닦아낸다)

도령: 비켜라! 어딜 더럽게!!

도령이 밀쳐내자 벌러덩 자빠지는 서린.

도령: 오죽없이 흙탕물을 밟아 이리 되었으니 내 그 발모가지를 작신 분질러주마!

도령이 몽둥이로 서린을 후려치려는 순간.

불쑥 나타나 그의 손을 잡아채는 여술.

도령: 뭐..뭐냐?

여술: 백주대로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오!

도령: 뇌라! 내, 상것들에게 잘못을 호되게 가르칠 것이다.

여술: 아무리 부아가 나도 그렇지....함부로 사매질을 해서야 되겠소.

도령: 뭐...뭐라? 감히 내가 누군지나 알고 나서는가!

여술: (비아냥거리듯) 부친께서 당상관이신데 자제분 또한 그에 걸맞은 덕망을 지녀야지.

팔을 틀어쥐고 놓지 않는 여술과 이를 뿌리치려는 도령의 힘겨루기.

그러나 곧.... 도령이 여술의 기에 눌러 고개를 돌리자 팔을 놓아준다.

여술: (서린에게 다가가 능청스레) 어찌하여 지체 높으신 자제분의 옷에 흙탕물을 튀었느냐!

서린:

여술, 느닷없이 고인 흙탕물을 밟자 서린의 옷에 철썩 묻는다.

여술: 이러면 되었지?! 이제 서로 빗진 게 없는 게요!

도령: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사대부의 비단도포와 천한상것의 삼베적삼이 어찌 같다는 것이야!

여술: 이보시게, 몸에 걸친 천조가리에 귀하고 천함은 있겠으나.

어찌 그 옷을 입는 사람에게도 귀천이 있겠는가!

사람의 귀하고 천함을 그자의 행동거지에서 찾는다면 모를까.....

도령: 뭐....뭐라.....

화가 치밀어 분하지만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도령들.

여술, 그들을 비웃으며 홀연히 자리를 떠난다.

여술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만 보는 서린.

s#12. 과거회상.

서린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담벼락 너머 누군가에게 시선을 빼앗기며 다가간다.

길가를 지나는 여술, 온 동네 여인네들의 애타는 시선을 받으며 유유히 거닐고 있다.

그의 뒷모습에 설레이는 서린, 여술과 눈이 마주치자 몸을 숨기고 수줍어한다.

s#13. 과거회상.

군사들이 어느 대갓집에 들이닥쳐 아수라장인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고 있다.

마침 지나던 서린도 어리둥절 다가와...

구경꾼1: 이 댁 영감마님이 역당의 무리였다네.

구경꾼2: 아이고 저런... 이제 이집안도 끝났구먼...

군졸: 어이! 괜히 어슬렁거리다 무더기로 끌려가기 싫으면 썩 물러들 가시게!

서린, 그 댁이 여술의 집임을 알아차리고 당혹해하는데...

안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광분한 여술이 칼을 휘두르며 뛰쳐나온다.

당황한 군졸들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위협하다 이내 도망을 치는 여술.

서린은 군졸들에게 쫓기는 여술을 안절부절 바라본다.

s#14. 과거회상.

근심스런 얼굴로 밤길을 지나는 서린.

이때 시커먼 뭔가에 다가가면, 칼에 맞고 죽어가는 여술이다.

흠칫 놀라 그의 상처를 살피는 서린.

수색중인 군졸들을 피해 일단 여술을 부축하여 자리를 피한다.

s#15. 과거회상.

어느 인적 없는 곳에서 여술을 치료하고 있는 서린.
위험한 고비는 넘긴 듯 안도한다.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여술, 희미하게 아버님을 외치며 눈물을 흘린다.
이를 안쓰러움에 지그시 바라보는 서린.

s#16. 현재. 상화방(賞花坊) 거리. (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거리 가득 흥등으로 불 밝힌 상화방거리.
창기들이 거리로 나와 호객을 하는 그곳에 묵현과 백부장이 있다.
상화방 입구에서 수하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희락.
<상화방*창기를 두고 손님을 받던 기생집.>

백부장: (은밀히) 저자가 우두머리인 희락이란 자입니다.
 검계 패거리 수습을 거느리며 특전판과 상화방창기들을 관리하고 그 해ūt값을 챙깁죠.
묵현: 그 그림이 저자에게서 나왔다 이건가!
백부장: 설마 좌상대감이 저런 불한당 놈들과 관계가 있겠습니까요?
묵현: 참판의 목에 난 절창을 보았는가? 내 그리 정교한 솜씨는 본적이 없네.
 그 정도로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는 조선팔도에 몇 안 될 것이야. (앞으로 나선다)
백부장: 아니...저 어찌시려고....? (난처해한다)

검계 패거리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묵현.

묵현: 고놈들 참 무작스럽게도 생겼구나.

협악한 검계 패거리들이 인상을 구기며 다가온다.
검계의 2인자 천달이 앞으로 나서며...

천달: 괜한 봉변당하기전에 썩 물러가시오!
묵현: 가만 보니.... 면상 더러운 거로 치면 네놈이 가장 으뜸이로세!
천달: (옆에 찬칼을 내보이며 타이르듯) 여보쇼, 우리가 그간 양반네 목을 몇이나 뺏을 것 같소.
묵현: 요놈아 옆구리에 칼 찔다고 다 사낸 줄 아느냐.
 계집도 네놈보단 큰 칼을 차고 다닐 것이다.
천달: 뭐라? 이놈이 죽고 잡아 환장을 했구나!

천달이 칼이 뽑아들자 다른 놈들도 모두 칼을 뽑아든다.
그들의 칼을 면밀히 훑어보는 묵현, 이내 실망한 듯 쓴웃음을 짓는다.

백부장: (두렵지만 앞으로 나서며 허세) 이..이런 육시랄놈들! 칼 안 치워! 우리가 넌 줄 알아!

천달: 이젠 또 뭐야? 입 살을 찢어서 쌍언청이를 만들어줄까!
백부장: 이..이러지 마라 이놈들아....
묵현: (한숨) 네놈들 중에 내가 찾는 놈은 없는 듯싶구나.
소, 돼지나 잡는 그런 무딘 칼로는 절대 그리 정교한 절창을 낼 수 없지.
천달: 그럼 어디 무딘 칼에 살 찢질 썰려나가는 소리 들어 볼터!

한바탕 벌어진듯 긴장이 오가는 찰나.... 불쑥 나타나 막아서는 희락. “그만들 두게!”

희락: (묵현에게 예를 갖추 인사한다) 무례를 용서하시지요.
미처 알아보지 못하여 실례를 범했습니다.
묵현: 나를 아는가?
희락: 한성 땅에서 나리의 명성을 모를 자가 있겠나이까.
묵현: (의중을 캐려 듯 한참을 희락과 눈을 마주본다)
백부장: (슬쩍) 뭐...그러하다면 우리가 한번 눈감아 줘... 나으리 그만 가시죠...

백부장에 이끌려 일단 물러나는 묵현.

천달: 저 자를 왜 저리 보내시오? 내 한칼에 베어버릴 진데!
희락: 내덕에 숨이 붙어있는 줄 아시게.
천달:?

백부장과 묵현이 빠져나가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여술이 나타난다.
백부장이 미처 여술을 보지 못해 어깨가 부딪치려는 찰라.
순간 백부장의 급소를 톡- 밀쳐내는 여술.... 이에 백부장은 맥없이 자빠진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빠른 동작이었으나 이를 알아차리는 묵현.

백부장: 이봐 거 앞 좀 잘 보고 다녀!!
여술: 미안하게 댔습니다. (가볍게 목례하고 가던 길을 향한다)

여술을 유심히 살피보는 묵현.
여술이 희락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눈다.

백부장: 이게 무슨 망신이야.... 자, 어서 가시죠 나으리.
묵현: 저자는 누구인가?
백부장: (여술을 살피며) 글썄요? 처음 보는 놈인데.... 헌데 이상하네.
검체 놈들은 몸에 흉터 없인 계원으로 안 받아 줄 터인데... 저놈을 깨끗하네.
묵현:

대뜸 여술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가 돌려세우는 묵현.
그리고는 다짜고짜 여술의 복부를 후려친다.

그 짧은 찰라.... 서로의 눈빛이 날카롭게 교차되는 모습이 느리게 비친다.

퍽!

그러나.... 여술이 쉽게 얻어맞고 나뒹굴자 싱겁게 끝나버린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술을 뚫한 얼굴로 내려다보는 묵현.

희락: 어찌 그러십니까? 금부도사나으리...

묵현: (여술을 보며 뭔가를 알아차린 듯 한 표정) 사람을 밀쳤으면 예를 갖춰 용서를 빌어야지.

묵현, 애써 시큰둥한 척 자리를 떠난다.

그 옆을 쫓르르 따라 나서는 백부장.

백부장: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그러실 것까지야...

묵현: 저자를 잘 감시하게.

백부장: 예?

묵현: 금소를 정확히 찌르는 자보다 금소를 비껴 맞을 줄 아는 자가 진짜 고수지.

백부장: ?

s#17. 상화방 별채. (밤)

여술과 희락, 그리고 천달이 들어서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가도치.

여술: 어렵히 알아서 할 것을... 왜 날 보자 한 거요?

가도치: 참판을 척살한 일은 잘했다하나 어찌 그 종복 놈은 살려두었는가?

그자는 자네의 얼굴을 보았지 않는가? 행여 그자가 발설키라도 한다면....

여술: 난,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들에게 칼을 뽑은 것이지.

아무에게나 함부로 살인을 일삼는 악귀가 아니오!

가도치: 허나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실체가 들어날 수도 있네.

사적선생께서 그간 자네의 뒤를 봐주었음을 잊었는가!

여술: 내가 잡히더라도 절대 사적선생을 거명치 않을 것이니 염려 마시오.

그보단... 난 언제나 되야 그분을 뵈 수 있는 것이요?

가도치: 곧 만나게 될 것이니 재촉 마시게.

저들이 사적선생의 존재를 눈치챈듯하여 함부로 정체를 드러내실 수 없음이야.

여술:

가도치: 이제 가장 크고 드센 범 한마리만 남았어.

연민에 휩쓸려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길 바라네.

밖으로 나서는 여술과 희락.

천달도 뒤이어 따라 나서려 하자...

가도치: 검제 무리의 2인자라고!

천달:

가도치: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난 자네가 2인자로 머물기엔 참으로 아깝단 생각이 드네만.

천달: (흔들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s#18. 별채 밖. (밤)

밖으로 나오는 여술과 희락.

희락: 저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내 벼슬아치입네 선비입네 하는 작자들을 잘 아네만
사대부란 게 본디 그 음흉한 꾀속을 알 수 없는 족속들이네.
저들도 지금은 비록 당쟁에 밀려 숨어 지낸다 하나
모두 다 똑같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일세.
쓸모를 다했다 여기면 서슴없이 자넬 버릴 것이야!

여술: 사적선생은 오욕과 설움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날 거두어 주신분이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여술.

s#19. 서린의 주인집 대문 앞. (이른 아침)

서린이 떠날 준비를 하고 나서자 놀라 할 말을 잃는 아씨.

비단옷에 곱게 단장을 한 서린의 자태가 몰라볼 정도로 단아하다.

아씨: 내 옷이 몸에 잘 맞네 그려.

서린: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는 것인지...

아씨: 참으로 곱네, 고아.... 가서 잘하고 오게.

서린: (꾸벅 인사하며)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배웅까지 하며 잘 대해주는 아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운 서린.

s#20. 먼 길. (몽타주)

-서린이 아씨의 친정집인 한성까지 부지런히 걷는다.

-마을 지나 강을 건너는 서린.

-이어 산길로도 가로지른다.

-한참 만에 드디어 한성입구에 다다르는 서린.

s#21. 청계천 / 수표교.

설을 맞아 사람들이 수표교를 오가며 분주한 가운데...
그곳을 지나던 서린이 잠시 쉬고자 걸터앉는다.
무릎을 주무르며 땀을 식히는 서린.
뽕뽕 언 계천에선 아이들이 팽이치기, 연날리기, 썰매타기를 하고
어른들은 얼음을 깨어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시간경과)

낚시꾼들이 낚시를 마치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자 얼음 위에 깨놓은 구멍만 덩그러니 남는다.
그것도 모르고 썰매를 끌며 그곳으로 향하는 한 아이.
서린은 어느덧 휴식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나려 하는데....
아이가 깨어진 구멍에 썰매와 함께 끼어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아무도 이를 발견 못한 가운데 지체 없이 달려가는 서린.

서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서린, 팔을 뻗어보지만 닿질 않는다.
설상가상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얼음.
그럼에도 서린은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간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리가 약간 못 미치자
급기야 “에라 모르겠다” 팔을 주욱 내밀어 아이를 잡아챈다.
아이를 구해내는 서린.
그러나 얼음이 갈라지며 움푹달짝 못하고...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애타게 바라본다.
잠시 숨죽이며 긴장하는데..... 순간 얼음이 주저앉으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물속을 허우적거리며 꼼짝없이 죽게 생긴 서린.
죽음을 직감하자 그리운 누군가가 떠오른다.

서린: (마음에 소리) 도련님.....

기운이 빠지며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바로이때.... 불쑥 서린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는 누군가의 손.
결국 무사히 물위로 끄집어내어 목숨을 건져낸다.
서린을 구해낸 이는 다름 아닌 목현이다.

s#22. 목현의 집 별채.

물에 젖은 서린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추위에 오돌 오돌 떨며 고통스러워한다.
화로를 들고 들어와 앞에 놓아주는 목현.

묵현: 어서 몸을 녹이시오.

서린의 오한이 멈추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그녀의 손을 잡아 비벼주는 묵현.
서린, 잠시 뒤 진정이 되자 묵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듯 손을 뺀다.
수줍게 고개를 돌리는 서린과 그제 서야 민망해하는 묵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묵현: 시집간 누이가 입던 옷인데 맞을지 모르겠소이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시오.

묵현, 옷가지를 두고 나가려다 잠시 멈칫하는데....
서린의 붓짐사이로 살짝 비집고 나온 그것은 분명 화승총이다.
어리둥절한 묵현.

서린: (옷을 갈아입으려는 듯) 저... 잠시 나가 주셨으면...

묵현: 아! 미...미안하오. (아차하며 밖을 나간다)

s#23. 묵현의 별채 앞.

묵현,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서는데 어머니가 불쑥 나타난다.

묵현母: 아버님은 어찌 지내고 계시더냐?

묵현: 염려치 마십시오. 아버님은 잘 계시옵니다.

묵현母: 연로하신 영감께서 그 모진 고초를 어찌 견디어 냈꼬!

묵현: 소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을 구명해 낼 것입니다.

묵현母: (근심스레) 네가 아버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지만...행여 경거망동을 해선 아니 된다.
이번일은 감정대로만 해선 아니 돼... 그건 네 아버님도 원치 않을 것이야.
자칫 우리가문이 위험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묵현: (쉽게 대답을 못한다)

이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는 서린.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 않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다.

묵현: 왜 벌써 나오셨소? 좀 더 몸을 녹이시지...

서린: (꾸벅 인사를 하며) 목숨을 구해주신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요?!

묵현: 은혜는 무슨... 무사하니 되었소.

서린: 아니옵니다. 사람 된 도리로 어찌 은인을 가벼이 여긴단 말입니까!

묵현: 그보단.... 아직은 움직이기엔 이른 듯싶소! 좀 더 몸을 추스르고 가시오.

서린: 괜찮습니다. 이미 너무 지체되었기에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묵현: 안색이 창백한데 이렇게 가다니오! 대체 어딜 가기에 그리도 무모하단 말입니까?

서린: (고집스레) 마음써주시어 송구하오나... 꼭 가야만 합니다. 그럼....

정중히 인사하고 서둘러 대문 밖을 나서는 서린.
묵현, 서린의 붓짐을 보며 왠지 모를 신경이 쓰인다.

묵현: 어머니 소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다급히 밖을 뛰쳐나간다)
묵현母: (근심스레 묵현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24. 복촌.

묵현이 서린의 뒤를 조용히 따라온다.
잠시 뒤 멈춰서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서린.
옷매무새를 바르게 고치며 모습을 단정히 한다.
묵현은 멀찍이 떨어져 이를 지켜보는데....

백부장: (느닷없이 나타나) 나으리 여긴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요?
묵현: 자네야말로 여기 어떤 일인가? 내 그자를 잘 감시하라 이르지 않았는가!
백부장: 저야 시키신 대로 잘 감시하고 입습죠. 저기~(손가락을 가리킨다)

이어 나타나는 여술... 그리고 서린과 만난다.
여술의 등장에 반갑게 맞이하는 서린.

여술: 늦었구나. 그만 들어가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리둥절한 묵현.
서린과 여술이 어느 대갓집 솃을대문을 두드린다.

백부장: 저놈이 낮부터 웬 종일 저 댁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묵현: 저긴 뉘 댁이냐?
백부장: 놀라지 마십시오! 저 곳이 바로 노론의 실세인 진이창 좌상대감댁입니다.
묵현: 뭐라.... 저 집이?

묵현, 눈이 휘둥그레 쳐다보는데....
잠시 뒤 솃을대문이 열리며 종복들이 나온다.

종년: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아이고 아씨 오셨습니까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종복들이 마치 아씨 대하듯 반갑게 맞이하자 당황하는 서린.
이를 지켜보던 묵현은 더욱 놀란 듯 혼란스럽다.

s#25. 행랑채 앞마당.

집안으로 들어서서는 서린과 여술.

종년: (서린의 붓짐을 빼앗아 들며) 아씨 짐은 제게 주십시오.

서린: 아..아니옵니다... 괜찮습니다.

종년: (엄한 얼굴로 변하며 작은 소리로) 이번이 처음이냐?

너는 지금 천한 종년이 아닌 아씨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온 문안비다.

아씨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거라!

서린:

종년: (돌변하며 다시 환하게 웃는다) 아씨, 어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난처함에 종년을 따르는 서린.

집안의 종복들 모두 재밌다는 표정이다.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피는 여술.

집안 곳곳에 배치된 사설군사들을 확인한다.

s#26. 사랑채 앞마당.

사랑채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호위대장 양서방이 있다.

양서방과 눈이 마주치며 그가 고수임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여술.

종년: 대감마님. 아씨께서 오셨습니다요.

잠시 뒤 대청으로 나오는 진이창 좌상대감.

여술, 진대감과 마주치자 순간 옛 기억에 호흡이 멈춘다.

플래쉬 백-

과거....사늘한 주검이 되어 길바닥에 버려진 아버지를 보며 오열하는 여술.

뚝한 표정으로 관군들에게 지시하는 진대감을 죽일 듯이 노려본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진대감: 왔느냐? 시댁부모님들께선 두루 평안하시고?

서린: (어색함에) 네...? 예...대감마님....

종년: (대감마님이란 말이 튀어나오자 흘기며 눈짓을 한다)

진대감: 다들 듣거라. 명절이니라.... 좋은날이니 만큼 집안이 모두 흥겹게 보내야한다.

허니 넌 문안비로써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집안 누구도 저 아이를 내 여식과 다름없이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크게 경을 칠 것임을 명심들 하여라.

종복들: 예~ 대감마님.

진대감: 행색이 참으로 남루하구나.... 내 이제 것 자식에게 저런 옷을 입혀본 적이 없다.
머물 곳을 내어주고 옷을 갈아입혀라.

종년이 서린을 데리고 나간다.
그런데....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여술.
진대감, 이를 이상히 여긴다.
여술은 분노에 치를 떨며 당장 일을 치를 듯 한 기세다.
살기를 느끼며 경계하는 양서방.
서린도 가던 길을 멈추고 불안해한다.

진대감: 내게 할 말이라도 있느냐?

여술, 당장이라도 품안에 칼을 뽑아 무모하게 달려들 기세다.
긴장이 흐르며 일이 벌어지려는 찰나.
목현이 종복들을 뿌리치며 막무가내로 들이닥친다.

목현: 그간 강령하셨습니다? 의금부도사 최목현이라 하옵니다.
진대감: 자네가 그 유명한 최도사로군. 검기가 대단하다들었네.
목현: 좌상대감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리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대감: 내게 할 말이 있다?
목현: 지금 죄 없는 조정의 중신들이 옥사에 갇혀있습니다.
몇몇 이들이 전하께 역심을 품었다하여 소론의 중신 모두를 그 배후라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진대감: 말의 골자가 무엇인가?
목현: 대감께서 바로잡아주십시오.... 그만한 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진대감: 그런 부탁이라면 돌아가게.
목현: 대감!
진대감: 전하를 능멸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한 그들은 증죄를 면치 못 할 것이네.
목현: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진대감: 죄가 있고 없고는 자네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스스로 죄를 토설하고 그 댓가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네
자네도 그리 안심할 처지는 아니지..... 함부로 경거망동하여 화를 자초하지 말게!
목현:
진대감: 차라리 아비를 구명해 달라 애원이라도 하지 그러나!
목현: (화가 치솟아 전딜 수 없으나 어찌질 못한다)
양서방: 그만 돌아 가십시오.

소득 없이 자리를 떠나는 목현이 여술과 눈길을 스치며 밖을 나선다.
목현의 등장덕분에 이성을 되찾은 여술.
서린은 여술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피하자 그제야 마음을 놓는다.

여술의 뒷모습을 뚫히 쳐다보는 진대감.

s#27. 진대감 댁 솥을대문 앞.

양서방: 안녕히 가십시오.

묵헌: 자네가 양서방인가? 창술이 뛰어나다 들었네.

양서방: 도사 나으리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묵헌: (픽-웃으며) 대감을 잘 보필해드리게... 근자에 들어 자객이 하도 기승하여서 말이지....

s#28. 별채.

서린에게 지낼 거처를 마련해주고 비단옷을 건네는 종년.

종년: 내일 입을 설빔입니다.

종년이 나가자 홀로 텅그러니 남게 되는 서린.

비단옷을 뚫히 바라보며 근심어린 표정을 짓는다.

s#29. 진대감 댁 후원정자.

연못에 잉어먹이를 주는 진대감.

양서방이 나타난다.

진대감: 갔느냐?

양서방: 한참동안 주위를 배회하다 이제 막 왔습니다.

진대감:

양서방: 최도사를 저리 뒤흔도 되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자입니다.

진대감: 내 주변에 위험한 자가 어디 최도사 하나뿐이더냐!

양서방:?

s#30. 행랑채 뒤쪽 텃마루.

행랑채 텃마루에 걸터앉아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여술.

플래쉬 백-

좀 전에 진대감의 모습이 떠오른다.

여술, 분노에 치가 떨려 어금니를 깨문다.

염려되어 나타나는 서린.

서린: 불길을 다스리십시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여술: (통명스레) 제넘치 말거라,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

서린: 입에 꼭기는 채우셨는지요?

여술:

서린: (품에서 흰 천에 곱게 싼 꽃감을 내민다) 이거라도 드시지요. 달달하여 맛이 좋습니다.

(들뜬 표정) 대감께서 문안비라 하여 응송한 대접을 해주시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천한 저를 양반댁 귀수 대하듯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여술: (서린의 태도에 못 마땅한 듯) 이곳에 온 목적을 벌써 잊었느냐!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아씨네 하며 떠받들어 주니 사대부 귀수라도 된 줄 아느냐!

고작 이따위 것에나 현혹되고.... (분개하며 꽃감을 바닥에 내던진다)

서린: (버려진 꽃감을 보며 애써 서운함을 감추며) 용서하십시오.

들뜬 마음에 잠시 본분을 잊었습니다.

여술:

말이 지나친 듯 미안해하지만 애써 태연한척 자리를 떠나는 여술.

서린, 서글픔에 꽃감을 주워 담는다.

그리고.... 멀리서 의심을 품고 관찰하는 양서방.

s#31. 전옥소 앞 정문. (해질 녘)

해질 녘의 전옥소 앞을 지키고 선 옥쇄장,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옥쇄장: 누구냐?

묵현: 날세.

옥쇄장: 도사나으리? 아니....이곳엔 어인일로?

묵현: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만... 아버님을 잠시 뵈었으면 하네.

옥쇄장: 그... 그건 아니 되웁니다. 내금위에서 알면 크게 경을 칠 것입니다요.

묵현: 그래서 부탁이라지 않나. 잠깐이면 되네.

옥쇄장: (난감) 그것이 참.... 아니 되는데...

s#32. 옥사. (해질 녘)

묵현이 들어서면 모진 고문으로 끙끙 앓으며 초라하게 누워있는 묵현父.

이를 보는 묵현의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롭다.

묵현父: (묵현의 등장에 애써 떨쩍한 척) 여긴 어찌 또 왔느냐?

묵현: (울척) 아버님....

묵현父: 사내놈이 왜 그리도 자주 눈물을 보이는 게야! 보기에 썩 좋지 않구나.

묵현: 아버님께서 이리 되시었는데 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에 화가 나 눈물이 납니다.

차라리 옥사 문을 부수고 파옥을 하라시면 당장이라도.....

목현父: 어허!! 전하께서 여신 국문이다. 파옥은 곧 스스로 역당임을 자초하는 것이야!

목현: 아버님을 구명치 못하는 불효를 저지를 바엔 차라리 역당이 되는 것이....

목현父: 어허 그래도!! 큰일 날 소리!!

목현: 허면 제가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목현父: (지그시 바라보며) 목현아....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네 어미와 동생부부에게 만든 불뚝이 튀지 않도록 몸을 낮추어야 한다.

내말을 귀여져듣고 아로 새기어야 하니라.

목현:

목현父: (희미한 미소) 그래도 장손인 네가 있어 마음이 놓이는 구나.

목현: (괴로움에 입술을 악다문다)

s#33. 전옥소 밖. 거리. (해질 녘)

어느덧 해가 저물며 어둠이 깔리는 가운데... 전옥소를 나서는 목현.

거리엔 연종제를 통해 악귀를 쫓고자 가면을 쓰고 제금과 북을 울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때 헐레벌떡 달려오는 백부장. “나으리~”

목현: 무슨 일인가?

백부장: 검계 놈들을 지켜보고 있사운데...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놈들이 무슨 일이라도 치를 듯 죄다 좌상대감댁으로 몰려가지 뭘니까.

목현: (번뜩) 나장들을 불러 모으게.

백부장: 이미 그곳에 준비시켜놨습니다.

황급히 달려가는 목현과 백부장.

s#34. 진대감 댁. / 선달그믐날밤의 풍경.

어둠이 깔리며 어스레해지자 집안 구석구석에 등축을 환히 밝히며 수세(守歲)를 행하는 종복들.

<수세* 선달 그믐날 제야(除夜)에 집안 구석구석에 등축을 밝히고 밤을 새우는 풍습.>

집안의 아낙들은 갓은 나물과 만두전골, 정과, 식혜 등을 만들고 떡을 찜느라 절구질을
남자들은 집 안팎을 수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분주하다.

문안객들이 줄지어선 가운데 그들이 가져온 선물들로 가득 쌓여가는 앞마당.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선달그믐날 밤은 축제분위기임에도 어딘가 불길한 전운이 감돈다.

s#35. 행랑채. (선달그믐날밤)

설 준비에 왈작한 집안을 둘러보는 서린, 한쪽엔 들뜬 아이들의 장난으로 소란하다.

이때 신발을 모아서 숨기다 서린과 부딪치며 넘어지는 상노아이(9).

서린: 괜찮니? 안 다쳤어?
 상노아이: (서린의 비단옷 차림을 보며 고개를 조아린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시옵쇼 아씨~
 서린: 난 아씨가 아니야! 너와 다르지 않은 신분이란다.
 상노아이: 다들 아씨라고 부르던데요?
 서린: 그건..... (상노아이가 안고 있는 신발을 보며) 헌데 지금 뭐하는 거니?
 상노아이: 야광귀가 신을 신고 가버리면 나쁜 일이 생긴데요....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종년: (놀리듯) 이놈아 서둘러서 돌지 않고 뭐해? 곧 산에서 야광귀가 내려 올 것이야.

서둘러 달려가는 상노아이.

서린: (전을 부치는 종년들에게 다가가)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종년들: (장난스레) 귀하디귀한 양반댁 아씨께서 천한제집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시다니
 아니 될 말입니다.
 서린: 이러지 마십시오. 저 역시 다를 바 없는 천한 종년입니다.
 종년: (웃어 보이며) 괜찮네....자네가 양반행세를 할수록 우리는 더 즐거우이.
 우리같이 천한 것들한테 일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한 기회지 않는가.
 허니 자네도 이참에 실컷 양반놀음이나 하며 천출로 태어난 한을 풀게.
 그래야 보는 우리도 후련하지 않겠는가.

다른 종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한다.
 마음이 불편한 서린.

s#36. 진대감 댁 바깥쪽 담벼락. (선달그믐날밤)

뒤쪽 담벼락 밑에 검게 무리와 함께 숨어있는 희락.
 잠시 뒤 여술이 집안을 빠져 나온다.

여술: 준비는 다 되었는가?
 희락: 나례청 수척으로 위장해 안으로 들어가 나례의식을 할 것이네.
 징을 울리고 폭죽을 터트리며 한바탕 소란을 떨 것이야.
 기회는 그때뿐이네.

<나례*선달 그믐날 밤에 민가와 궁중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푼 의식>

여술: 내가 일을 치르는 동안 자네는 서린을 빼내어 멀리 몸을 은신해주시게.
 희락: 걱정 말게.... 헌데 서린이 달포 전 나에게 화승총 한 자루를 구해 달라하여 주었네만.
 여술: 화승총? 그걸 왜 이제 말하는가?
 희락: 난 그 아이가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지니려는 줄 알았네.
 여술:

s#37. 행랑채 뒷마루. (선달그믐날밤)

서린이 뒷마루에 앉아 있고 그 옆엔 상노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서린: (장난스레) 자면 아니 돼! 오늘밤 해지킴을 안 하고 잠들면 눈썹이 희어진다.

상노아이: (눈을 부릅뜨며 버린다)

그 모습이 재밌어 킷-웃음이 나오는 서린.

이때, 여술이 다가오자 다소 어색해지는 두 사람.

여술: 아까는 내 말을 함부로 해 미안하구나.

서린: 아니옵니다. 철없이 굴어 도련님께 실망을 안기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술: (서린을 보는 마음이 미안하다) 자정이 되면 폭죽이 터지고 요란스러울 것이다.

그 틈을 이용해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서린: 이곳에 사람들은 어찌되는 것인지요?

여술: 그들은 나의 적이 아니다...허나 일이 잘못되어 내 앞길을 막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서린:

여술: 화승총은 무엇에 쓰고자 지니고 있느냐?

서린: (대답을 않는다)

여술: 행여 딴 생각은 말거라... 넌 나를 이리 들인 것으로 네 소임을 다했다.

서린:

여술: 서린아.....

서린: ?

여술: (할 말을 망설이듯 입술 달싹거리다) 아니다.... 나중에 하자꾸나.

여술, 자리를 옮긴다.

그의 뒷모습을 공허하게 보는 서린.

s#38. 진대감 댁. (선달그믐날밤)

여술이 집안을 은밀히 휘젓고 다니며 사병들의 군세를 파악한다.

불쑥 앞을 가로막는 양서방.

양서방: 자네.... 문안제집의 배행꾼 노릇을 한 자라고!

여술: 그렇습니다.

양서방: 허면 그 댁 종인가?

여술: 그건 어찌 물으시옵니까?

양서방: (의심스레 즐기며) 그 댁에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네만....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일세.

여술: 저 같은 종놈이 어디 한 들입니까. 그럼...(가볍게 목례하고 자리를 피한다)

양서방: (떠보듯) 그 댁에 무염이란 종놈과 가까이 지내었는데.... 아직 잘 있는가?

여술, 멈춰선 채 양서방을 뵈히 바라본다.
서로 마주 한 채 의중을 파악하고자 신경전이 오가는 두 사람.

여술: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는 없습니다.
양서방: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뵈히 쏘아보다)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게.

사라지는 양서방.
여술, 매우 신경이 쓰인다.

s#39. 사당 채. (선달그믐날밤)

진대감과 일가친척들이 모여앉아 묵은세배를 하고 있다.

아랫사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대감: 자네들도 고생 많았네. 내년에도 건강하고 하는 일 잘되시게.

마당에 모여든 종복들도 이를 지켜보며 경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린도 무리에 섞인 채 복잡한 심정으로 진대감을 뵈히 보고 있다.
잠시 뒤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서린.
조용히 빠지려다 텃마루에 아예 잠이든 상노아이를 발견하고 멈춰 서는데...
돌연 장난 끼가 생겨 아이의 눈썹에 밀가루를 바르고는 킁-웃는다.

s#40. 별채. 서린의 거처. (선달그믐날밤)

별채로 들어와 장 깊숙이 숨겨둔 붓짐에서 화승권총을 꺼내드는 서린.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총구에 화약을 넣는다.

s#41. 진대감 댁 솥을대문 앞동산. (선달그믐날밤)

나장들이 동산에 숨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묵현과 백부장이 당도한다.

나장1: 검체놈들이 수척으로 위장해 안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밖에 숨어있습니다.
묵현: 내가 들어가 볼 터이니 신호가 있을 때 까지 여서 기다리게.
백부장: 나으리.... 저곳은 노론의 실세인 좌상대감댁입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 싸기 마련이라고 자칫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요.
묵현: (상관없다는 듯 고집스레 나아간다)

대문 앞을 지키고 선 사병들.
많은 관료들이 선물과 명함을 받치고자 줄지어서있다.

줄을 무시하고 맨 앞으로 성큼 가는 목현.

목현: (능청스레 대문을 들어서려한다) 고생들이 많구나.

사병1: 여긴 어찌하여 또 오셨습니까?

목현: (세함에 명함을 놓으며) 나 역시 조정의 녹을 먹는 관료네
명절을 앞두고 고위직 관료에게 명함을 돌리어 잘 보이고자 하는 게 어디 나 뿐인가!
기왕 온 김에 대감께 묵은세배나 올려야겠네.

사병들이 말릴 틈도 없이 막무가내로 집안에 들어가 버리는 목현.

사병1: 어서 양서방께 알리게.

s#42. 별채. 서린의 거처. (선달그믐날밤)

여술: (문밖에서의 소리) 서린이 안에 있느냐?

대답이 없자 들어서는 여술, 방안에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서려다 뭔가를 발견한다.
들어와 자세히 살피면 바닥에 흘려진 화약.
여술은 문득 불길한 생각에 엄습해오자 서둘러 나간다.

s#43. 진대감 댁. (선달그믐날밤)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매는 목현.
이때, 은밀하게 사랑채로 향하는 서린을 발견하고 아는 척을 하려는데....
하필 진대감댁 사병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일단 자리를 피한다.

s#44. 사랑방. (선달그믐날밤)

방안으로 숨어드는 서린.
병풍 뒤로 몸을 숨기고는 화승권총을 꺼내들고 조용히 대기한다.

s#45. 진대감 댁. (선달그믐날밤)

여술이 서린을 찾아 나서는데 사병들이 분주히 오가자 더욱 불안해진다.
아무래도 사랑채 쪽으로 갔음을 확신하는 듯 입술을 깨무는 여술.
품안에 단검을 뽑아들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한다.

s#46. 사랑채 누마루. (선달그믐날밤)

진대감: 무슨 일인데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양서방: 최도사가 집안으로 들어왔다 하옵니다.

진대감: (눈살이 찌푸려진다)

양서방: 심려치 마십시오. 곧 찾아내어 집밖으로 쫓아내겠습니다.

사병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양서방.

진대감이 노여움에 입술을 실룩거리는 가운데...

여술이 멀리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s#47. 사랑채에서 안채로 연결하는 뒷길. (선달그믐날밤)

여술,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뒷길로 숨어든다.

누마루에 앉아있는 진대감의 모습에 분노가 부풀어 오르는 여술.

단검을 뽑아들고 뛰어들고자 발을 내딛는데.....

불쑥 나타나는 목현.

목현: 네놈은 누구냐?

여술: (목현의 갑작스런 등장엔 당황한다)

목현: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당장 포박하여 끌고 갈 것이다.

진대감이 눈앞에 보이자 참을 수 없음에 뛰쳐나가 베려 드는 여술.

목현이 맨주먹으로 제압을 하려한다.

침묵하면서도 빠르고 강하게 주먹이 오가는 두 사람.

목현과 여술 모두 대단한 고수다.

사병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 숨죽인 듯이 그러나 매우 격렬한 싸움.

목현: (잠시 마주한 채) 대체 이곳에 숨어 든 연유가 무엇이란 말이다?

여술: 금부나으리야말로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보아하니 저들은 나으리를 찾는 듯한데.

목현: 객쩍은 소리 집어치우고 바른대로 고 하렸다!

여술: 제가 고할 것은 금부나으리 와 제가 칼을 맞낼 연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두 사람 모두 같은 적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목현: 네놈이 정령 의금부로 압송을 해야 입을 열겠느냐!!

여술: (사병들의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자 초조함에)

부친께서 저들의 덫에 목숨을 구존키 어렵다 들었소.

그게 다 저 너구리같은 좌상의 음흉한 꾀속에서 나온 계략이란 말이외다!

목현: 뭐...뭐라?

여술이 뭔가를 아는 듯 하여 좀 더 캐묻고자 하는 목현.

사병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일단 여술을 끌고 자리를 피한다.

s#48. 찬방. (선달그믐날밤)

반찬 만드는 기구 따위를 넣어 두는 찬방에 몸을 숨기는 묵현과 여술.
문틈으로 사병들의 동태를 살핀다.

여술: 이리 지체할 시간이 없소. 날 방해치 마시오.

묵현: (먹살을 부여잡으며) 좌상의 계략이라니? 좀 전에 하던 말을 마저 해 봐!

여술: (어쩔 수 없음에) 좋소... 지금 당신네 소론이 이지경이 된 건 지난 나주에서의 벽서와
토역정시 과거시험에 왕에 대한 불충을 담은 글 때문이요.

지금 조선은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반목으로 인해 서로를 원수 대하 듯 하고 있소.

하여 노론과 소론은 웃고름부터 소매치수, 깃치수, 화장치수 또한 달리하고

노론에서 제사를 흥동백서로 하면 소론은 조율이시로 올릴 정도로 서로를 적대시하오.
필체 또한 마찬가지요.

노론이 구양순체를 쓰고 있기에 소론은 동국진체를 쓰고 있소.

허면 나주목에 벽서를 쓴 그자도 소론의 동국진체를 사용해야 맞소.

묵현:

여술: 난 나주에서의 벽서를 보았소.

그건 분명 노론의 구양순체요.

묵현: 뭐...뭐라?

여술: 토역정시에 나온 그 답안도 확인해 보시오, 내 생각이 맞다면 그 또한 구양순체일 것이오.

묵현: (혼란스럽다)

여술: 누가 그런 거라 생각되시오! 이 모든 게 바로 좌상이 배후에서 조정 한 것이외다!

자...이제 우리가 적이 아님을 아시겠소. 허니 날 방해치 마시오.

여술이 밖으로 뛰쳐나간다.

혼란스러운 묵현.

s#49. 사랑채 뒷길. (선달그믐날밤)

단검을 뽑아들고 사랑채로 성큼성큼 향하는 여술.

묵현: (다시 막아서며) 멈춰라!

여술: 내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이오?! 내가 저자의 죄 가를 벌 할 것이라지 않소.

묵현: (칼을 뽑아 겨누며) 멈추라지 않느냐!!

여술:

묵현: 네놈 말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좌상이 허망하게 죽는 꼴을 볼 수 없다.

내 아버님을 구명하기위해서라도 좌상대감에게 물어야 할 것이 많으니라!

여술, 거치적거린다는 듯 느닷없이 칼을 휘둘러 묵현과 맞선다.

인정사정없이 칼날을 부딪치며 싸움을 벌이는 묵현과 여술.

이때, 사병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오자 두 사람 모두 당혹해한다.

안되겠다 싶은지 일단 담을 넘어 도망치는 여술.

묵현 또한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미처 그러기도 전에 양서방에게 발각되고 만다.

칼을 뽑고 있는 묵현을 보자 경계하는 사병들.

묵현: 오해들 말게...난 그저...

양서방: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묵현: 알았네!

대충 얼버무리며 양서방을 따라나서는 묵현, 여술이 사라진 담 쪽을 힐끗 본다.

s#50. 사랑채마당. (선달그믐날밤)

묵현: 집이 워낙에 넓은지라 내 길을 잃었네... 헌데 이곳 경계를 강화해야지 않겠는가.

워낙에 흥흥한 일들이 많아야 말이지... 나도 여까지 쉬이 들어왔지 않는가.

양서방: (마뜡잡은 표정) 그렇지 않아도 그리 할 것입니다.

(사병1에게) 이곳은 내가 지킬 것이니 도사나으리를 대문 밖까지 뵈시게.

묵현: 양서방 자네가 직접 이곳을 지킨다니 내 마음이 놓이네.

누마루에서서 밖으로 나가는 묵현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는 진대감.

이내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s#51. 사랑방. (선달그믐날밤)

방으로 들어서는 진대감, 자리에 앉아 상념에 잠긴다.

그리고 바로 등 뒤, 병풍을 사이에 둔 채 화승총을 겨누고 있는 서린.

진대감은 눈을 감은 채 꿈쩍을 않는다.

잔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s#52. 진대감 댁 바깥쪽 담벼락. (선달그믐날밤)

담벼락 밖, 희락의 진영..... 초조해하는 여술.

여술: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어... 좌상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해!

천달: 그리했던 우리 모두 괴멸 할 것이오.

여술: 그렇다고 이리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희락: (곰곰이 생각하며) 내 생각에도 지금 들어가는 건 위험천만한 일일세.

이제 곧 안에서 폭죽이 터지고 한바탕 소란스러울 것이네

서린이도 분명 그 틈을 노릴 것이야.

여술: 총포가 울리는 순간 그 아이는 살아남기 힘들네.

희락: 그렇다고 선불리 들어가 일을 그르칠 순 없지 않은가!

여술: (이를 악문다)

희락: 서린이가 일을 치르면 우리가 들어가 빼 올 것이니 마음을 굳게 다지게.
(은밀히) 지금 이곳엔 금부도사의 군사들도 와 있다하네!

여술:!

s#53. 행랑채 앞마당. (선달그믐날밤)

사병들에 둘러싸여 대문 밖을 나서는 목현.

사병1: (불통스런 어투)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것도 선달그믐날 밤에 이 무슨 해괴한 짓이 옴니까!

 또다시 이리 막 나가신다하면 선네들 또한 더는 참아내진 않을 것이옵니다.

목현: 내 하나 여쭙세! 이 댁에 처자가 있지 않은가.

 그 처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사병1: 처자라니요?

목현: 왜 있잖은가! 동그스름하고 외모도 매우 수려한....

 내 보기엔 좌상대감의 여식인 듯 하던데.

사병1: 대감마님의 외동딸이신 아씨께선 술해 전 출가 하였습니다.

목현: 출가라니? 자네들이 그 여인에게 아씨라 부르지 않았는가.

사병들: (영문을 몰라 서로 고개를 갸웃하다 그제야 알겠다는 듯 웃으며) 그건 왜 물으시옵니까?

목현: 이 사람아 난 아직 상투도 못 올린 노총각 일세... 어찌 젊은 여인네에게 관심이 없겠는가!

사병들: (자지러지게 웃는다)

목현: 왜들 웃어?

사병1: 나으리 그 계집은 이댁 아씨가 아니옵고, 천한 종녀입니다! 문안비란 말입니다!

사병들이 재밌다는 듯 비웃는 가운데.... 한방 맞은 듯 혼란스러워하는 목현.

플래쉬-백

좀 전에 은밀히 사랑채로 향하는 서린의 모습이 번쩍 하고 나타났다 사라진다.

목현: (아차! 싶은지 황급히 돌아선다) 내 대감을 만나 봐야겠네.

사병1: 왜이러십니까? 더는 참아내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목현: 여보게... 일각을 다투는 일일세!

사병1: 뭇들 하는가?! 도사나으리를 어서 밖으로 뱌시게!!

목현: 어허 이 사람들이....(에라 모르겠다 는 듯 막무가내로 뚫고 가려한다)

목현, 사병들이 거칠게 막아서자 조금함에 이들을 때려눕힌다.

언어맞고 부아가 치민 사병들, 기어이 칼을 뽑아들고 덤벼든다.

일이 커지며 이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목현.

몰려드는 사병들을 때려눕히며 사랑채로 향하는데 양서방이 막아선다.

묵현: 비켜서게!
양서방: 돌아가십시오!

묵현이 아랑곳 않고 성큼 나아가자 이내 창을 휘두르는 양서방.
만만찮은 창술에 묵현도 급기야 칼을 뽑아들고 맞선다.

s#54. 사당 앞마당. (선달그믐날밤)

마당에서 나례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방상시들.
마당에 불을 환히 지피고 징을 울리며 잡귀들을 쫓아내는 의식을 거행한다.
사당 앞에 모여 구경하는 집안의 종복들.
방상시들이 폭죽을 쏘아 울리며 시끄럽게 소란을 떨기 시작한다.

s#55. 진대감 댁 솟을대문 앞 동산. (선달그믐날밤)

폭죽이 솟아오르는 광경을 지켜보는 백부장.

백부장: (초조하다) 넓적다리에 가래뿔이 났는가 어찌 이다지도 꾸물거리신단 말인가?
나장1: 부장나리 저길 보십시오.

보면, 대문 앞을 지키던 사병들이 병장기를 뽑아들고 우왕좌왕 안으로 들어간다.

백부장: (심상치 않음에) 뭘 일이 났는 모양인데....이를 어쩐다?
나장1: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 나으리께서 기다리라 잤아! 자발없이 굴지 말고 암전히 들 있어.
이 상황에 우리까지 부대끼면 걸잡을 수 없다!

s#56. 진대감 댁 뒤쪽 담벼락. (선달그믐날밤)

소리에 귀를 쫓긋 세우고 언제든 뛰어들 태세를 취하는 여술과 검계무리들.

여술: (총성을 들은 듯하여) 쏘았네! 총성이 들리지 않았는가!
희락: 폭죽소리 외엔 아니 들리었네.
여술: (초조함에 이성을 잃은 듯) 내 이럴 때가 아니야... 안 되겠어 나라도 들어가야지!
희락: 애쫘는 자네 맘 내 모르는 바 아니네만.... 지금 들어가면 일만 그르칠 뿐이야!

희락이 진정시켜 일단 참아보지만 여전히 불안한 여술.

s#57. 운종가거리. (선달그믐날밤)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 한성부 관주부.
나줄이 달려와 뭔가를 고하자 눈이 번쩍 뜨이며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달려간다.

s#58. 진대감의 사랑채. (선달그믐날밤)

병풍 뒤에서 진대감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서린.
심지가 타들어감에도 여전히 망설이며 방아쇠를 당기지 못해 바들바들 떠난다.
평온하게 앉아있는 진대감.

s#59. 진대감댁 뒤쪽 담벼락. (선달그믐날밤)

폭죽이 썸 없이 솟아오르는 가운데....
좌불안석 걱정과 초조함에 미치기 직전인 여술.

s#60. 진대감 댁. (선달그믐날밤)

엄청난 검기를 보이며 대결을 펼치는 묵현과 양서방.
묵현의 숨씨가 대단하나 양서방의 창술 또한 뛰어나다.
만만찮은 적수를 만난 듯 쓴웃음을 뺄고는 기합을 넣어 달려드는 묵현. “이야야야얍!!!”

<cross cutting>

-순간 지그시 눈감은 진대감과 극도의 초조함에 망설이는 서린의 모습이 번쩍하고 등장.

-이어 문밖에서 서린을 걱정하는 여술의 장면도 등장.

이들의 모습이 한 화면에 모여 긴장감 고조되자.....1부 엔딩 타이틀.

1부 끝... 2부에 계속.

2부

s#1. 진대감 댁. 사랑채앞마당. (선달그믐날밤)

물려가는 사병들의 뒤를 쫓는 카메라.

사병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묵현과 양서방이 대결을 펼치고 있다.

묵현: 창술이 대단하다던데 허튼 소문은 아니었네.

양서방: 조선팔도에 적수가 없다는 게 사실이군요.

잠시 숨을 고르는 두 사람.

s#2. 진대감 댁 뒤쪽 담벼락. (선달그믐날밤)

이윽고 폭죽이 잦아들며 요란하던 쾅과리 소리도 잠잠해진다.

초조해하던 여술, 어리둥절하다.

s#3. 사랑방. (선달그믐날밤)

눈을 감고 명상중인 진대감.

서린은 여전히 총구를 겨눈 채 망설이고 있다.

서린,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를 당기려하는데.....

진대감, 문밖이 소란스러워 밖으로 나간다.

참았던 숨을 내쉬며 잠시 긴장을 푸는 서린.

s#4. 사랑채앞마당. (선달그믐날밤)

진대감이 대청으로 나오면 묵현과 양서방이 대치중이다.

진대감: 웬 소란인가?

묵현: 용서하십시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이리 무례를 범했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진대감: 내일 날이 밝으면 그때 오게.

묵현: 잠시면 됩니다. 간곡히 청을 드리니 물리지 말아주십시오.

진대감: 내일 오라지 않는가! 어서 돌아가게!!

매정히 돌아서는 진대감.

묵현, 이대로 물러설 수 없음에...

묵현: 참판대감의 살해범을 함구하라 하셨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혹여.... 그 죄마저 소론에게 씌우고자 함이 아닙니까!

수족과도 같은 자기 쪽 사람의 죽음도 당쟁에 이용하는 것이...대감식의 정치입니까?

진대감: (웃지만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며) 들어오시게!

진대감을 자극한 것이 효과를 얻어 방으로 따라 들어서는 묵현.

s#5. 사랑채. (선달그믐날밤)

서린, 자세가 불편하여 몸을 비튼데.... 발밑에 이상함을 느낀다.

비밀금고라도 있는 듯 빈 소리가 텅! 텅! 울리는 방바닥.

이때....이를 확인 할 틈도 없이 진대감과 묵현이 들어선다.

묵현, 방안을 둘러보다 병풍 밑으로 빠져 나온 치맛자락이 다시 쪽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알아차린다.

긴장하는 서린.

진대감: 시답잖은 물음 따위로 감히 나와 독대를 청 할 만큼 무모하진 않겠지!

묵현: 저는 돌려 말할 줄 모르옵니다. 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물겠습니다.

정녕 노론과 소론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옵니까?

반하는 세력을 모두 몰아내야만 종지부를 내는 것이옵니까? 원세가 그리 탐나십니까?

진대감: 관료가 원세를 탐하는 것이 무어이 잘못이야?!

그것을 멀리 하는 것만이 옳은 태도라 여기는가?!

묵현: 그렇다고 무고한 이들을 저리 죽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이는 남의 약점을 빌미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대감: (미간이 뒤틀린다) 자네 말이 거칠 군.... 자네들 소론은 다름 거라 여기는가!

지금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하나 언젠가 그 쪽에서 기회를 잡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네.

묵현: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더더욱 달라져야지요!

나라의 대본을 생각하고 종사의 지체를 세워야할 대신들이 오직 당쟁에만 몰두하여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같은 환국을 어찌 이대로 좌시한단 말입니까!

하여 전하께서도 당쟁의 폐해를 없애고자 탕평으로 관직을 고루등용하신 게 아닙니까!

<탕평책* 당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던 정책.>

진대감: (우습게 보듯) 순진 한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고작 관변에서 물잔 조금 마신 일천한 경력으로 감히 나와 정치를 논하자는 건가!

자네 같은 애송이가 무슨 정치를 안다고.

묵현: (노려보며) 그리 잘 아시어서 죄 없는 자들을 저리 죽이고자 없는 죄까지 만드셨습니까?!

진대감: 입조심하게! 내가 이 나라 조정의 좌상임을 잊었는가!

묵현: 그간의 모든 일들과 대감께선 어떤 관계이옵니까?

진대감: (불쾌함에 언성이 높아지며) 전하께서 용상에 앉지 못하셨다면 우리뿐 아니라

전하 또한 무사치 못하였을 게야.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목을 내놓고 행하는 게 당쟁이네.
다행히 우리가 앞세운 분이 권좌에 앉아 어렵게 집권을 하였는데
전하께선 탕평을 앞세워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 하시었지.
이는 우리로써 절대 받아 드릴 수 없음이야!

목현: 그런 이유에서입니까? 탕평을 없애고자 그리한 것입니까?

진대감: 그리만 된다면 더할 나위없겠지!

목현: (노려보며)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꾸미신 겁니까?!

진대감: 내게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현: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진대감: 네놈 따위는 진실을 감당치 못해!

목현: 나주관변에 패서를 나 붙이고 토역정시에 까지 모든 계략을 대감께서 행한 것입니까?!

진대감: (부글부글) 그 입 조심하라 하였네!

목현: 말씀해보십시오!! 대감이 지시한 겁니까?!!

진대감: (급기야 폭발) 그래 정확히 깨우쳤다! 이제 됐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뒀을 잃는 목현.

진대감: 난 이 나라조정을 바로잡고자 일생을 받쳐왔다.

감히 내 앞에서 시건 방을 떠는 꼴이 가관이구나.

목현:

진대감: (목현이 얼이 빠져있자 비웃으며) 네 따위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은 식솔들과 네놈의 명줄이나마 구존코자 한다면 더는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진대감, 밖으로 나가버린다.

잠시 얼이 빠져 있던 목현, 마음을 추스르며 병풍 뒤의 서린에게...

목현: 무슨 사연이 있어 그러는지 모르나, 그만두시오.

내가 본 처자는 목숨을 귀이 여기는 사람이었소.

서린:

목현: 문 밖에서 기다릴 것이니 날 도와주시오.

그래야 처자와 이곳에 함께 온 그자 또한 살 수 있을 것이오.

이내 나가버리는 목현.

서린, 심사가 복잡하다.

s#6. 사랑채 뒷마당. (선달그믐날밤)

초조하게 찾아 헤매다 서린을 발견하고 안도하는 여술, 애틋던 감정을 감추듯 애써 성내며....

여술: 어찌 이리 어리석단 말이냐! 너 하나 때문에 일이 이지경이.....

서린: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한 얼굴) 도련님.....

여술:

서린: 못하였습니다... 차마.... 차마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술: (흔들리지만 맘에 없이 불통스레) 다시는 그리하지 말거라.

너가 생각 없이 행동하여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서린:

뒤이어 나타나는 희락.

희락: 가도치 그자가 자넬 보자 하네.

여술: 가도치가?

서린: 가지 마십시오.

여술:

서린: 복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라도 모두 잊고 초야에 묻혀 살았으면 합니다.

농투산이가 되어 흙을 파먹던, 팔도를 떠도는 장돌림이 되었던 도련님과 함께라면
그리만 살수 있다면..... 기박한 제집 더 이상 바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여술: (망설이는 듯 희락에게) 곧 뒤 따를 것이니 먼저 가있게.

희락: 사적선생이 이곳 한성에 와 있다하네.

번쩍 뜨이는 여술.

잠시 서린의 애타는 표정에 갈등하다 이내....

여술: 난 이만 가 봐야 할 듯 하.....

덤석 손을 잡으며 애절하게 바라보는 서린.

여술, 당혹해한다.

서린: 이 자리에서 결정하십시오.

사적선생을 따르며 죽은 자와 같은 삶을 택할 것인지.... 저와 함께 떠날 것인지.

여술: 서린아....

고집스런 서린을 보며 몹시 망설이는 여술, 난처함에 괴로워하나 결국....

여술: 난.....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서린:

여술: (애써 냉정한 척 돌아서는데)

서린: 어쩌면 좌상대감이나 우리나라 그리 다르지 않는 듯 싶습니다.

가까이에 소중한 것을 두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애처롭습니다.

여술, 잠시 머뭇거리다 서린을 뒤로한 채 사라진다.

s#7. shots대문 밖 동산. (선달그믐날밤)

목현이 대문을 나서는데 때마침 곽주부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난다.

곽주부: 죄인을 포박하라!

목현: 무... 무슨 짓인가?

곽주부: 닥쳐라! 죄상대감을 시해하려 들고도 무사할 성 싶더냐!

이윽고, 백부장과 그 수하들도 뒤늦게 몰려나와 한성부 군사들과 대치하며 긴장이 흐른다.

s#8. 산자락. (선달그믐날밤)

검계 일당이 몸을 숨기고 있는 산자락에 여술과 희락 그리고 가도치도 보인다.

가도치: 이게 무슨 꼴인가? 제집하나 단속을 못하여 일을 그르치지 않았어!
사적선생께서도 매우 실망하고 계시네.

여술: 기회를 봐서 반드시 그자의 목을 벨 것이니 걱정 마시오.

가도치: 자칫 우리 모두가 위험 할 뻔 하였어! 결코 가벼이 넘어 가선 아니 되!

여술: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요?

가도치: 모든 것엔 규칙이 있고 위계가 있는 법.
그 잘못을 엄히 묻는 것 또한 조직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네.

여술: (노려보며) 서린이를 벌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가도치: 아직도 말 뜻을 못 알아듣겠는가! 이는 그 제집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여술: 내게 죄를 묻는 것은 얼마든지 감내하겠으나 서린을 해코지하려 든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요

가도치: 이미 조치하였네.

여술: 뭐...뭐라!! 이놈이!!

여술이 가도치의 목에 칼을 겨누자 가도치의수하들과 희락의검계무리가 서로 칼을 겨누며 대치한다.

가도치: (흔들림 없이 노려보며) 대체 자네에게 그 제집이 무엇이어서 이러는가?!
한날 제집이 대업보다도 중요하단 말인가!! 고작 천한 종년 일 뿐이네!

여술: (이를 갈며) 누가 그 아이를 종년이라더냐!

가도치: 허면... 네 여인이라도 되는가?!

여술: (당혹해함에 흔들린다)

s#9. shots대문 밖. (선달그믐날밤)

한성부와 의금부 군사들을 뒤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목현과 곽주부.

이때, 서린이 집안을 빠져나와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기다린다.

서린과 눈이 마주치는 목현, 그러나 곽주부가 가로 막고 있어서 가지 못한다.

목현: 난 자네와 칼을 겨눌 마음이 없으니 군사들을 물리시게.

곽주부: 닥쳐라!! 어디서 수작이냐!

목현: 지난 일 때문인가?

날 미워하는 건 알지만 지난 일을 설분한답시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래도 한때는 친우로써...

곽주부: (목현의 목살을 잡고 분노하며) 내 아버님께선 네놈의 고문을 전디다 못해 돌아가셨다.

헌데 그 더러운 세치 혀로 친우란 말이 나와!

목현:

곽주부: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입에 버선 짝으로 아갈잡이를 하여 끌고 갈 것이야!

목현: 꼭 그리 해야만 하겠는가?

미안하네만 난 당장은 옥사에 갇힐 수 없는 몸이네...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자네와 나의 깊은 골은 후일에 풀기로 하세.

그럼에도 끝내 날 끌어가고자 한다면 나 역시 잠자코 따르진 않을 것이야!

곽주부: 오냐.... 어디 이 자리에서 사생결단을 내보자꾸나!

팽팽히 맞서며 긴장이 흐르는 상황.

서린은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기다리는데...

느닷없이 가도치의 수하들이 나타나 서린을 납치한다.

몸부림쳐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서린.

그러나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목현, 끝내 곽주부와 막 충돌하려 하는데.....

진대감: (불쑥 나타나) 뭘 들 하는 짓인가?

목현:

진대감: 더는 범절 없이 구는 것을 참아내지 않겠다 했거늘... 소란 피우지 말고 썩 물러가게!!

곽주부: 이자는 대감께 무례를 범한 자 이옵니다! 헌데 어찌....?

진대감: 물러가라지 않는가! 곧 동이 트면 정월 초하루네.

상서롭지 못하게 내 집 앞에 피를 뿌리겠다는 것인가? 어서 돌아들 가게!

최도사...내 자네를 예의주시할 것이야!

목현:

목현, 자리를 피한다.

분하지만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곽주부.

곽주부: 대감, 어찌하여 저자를 저리 보내시옵니까?

당장 옥에 가두시어 그 죄를 묻는 것이....

진대감: (사람 좋은 얼굴로) 아버님 제는 소홀치 않게 치루고 있느냐?

곽주부: 대감께서 항상 돌봐주시어 저희 두 모자 또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대감: 참으로 아까운 분이셨네... 자네도 아버님을 본받아 올곧은 의지로 살아야 하네.

내 자네를 수족같이 여기어 그 뒤를 봐 줄 터이니 계속 정진하시게.

곽주부: 고맙습니다. 대감께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진대감: (곽주부를 뒤로 한 채 묘한 표정을 짓는다)

목현, 서린이 있던 곳으로 가면.... 이미 사라지고 없다.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발견하고 불길해 지는데....

이때, 멀리서 들리는 사내의 비명소리“으아악!”

s#10. 계천. (선달그믐날밤)

입과 손발이 묶인 서린이 은장도를 휘두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

어깨에 칼을 찔려 쩡그리고 있는 사내.

겉에 질린 서린이 저항해보지만 곧 제압당하고 만다.

그러나 서린이 끝까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자 결국 주먹으로 머리를 후려치는 사내.

서린,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만다.

사내들이 기절한 서린을 들쳐 업는데....

목현: 웬 놈들이냐?

무섭게 달려와 사내들을 한방에 때려눕히는 목현.

사내들은 허둥지둥 줄행랑을 친다.

목현: (서린을 부둥켜안으며)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의식을 잃은 서린을 보며 당혹스러워 하는 목현.

s#11. 북촌. (선달그믐날밤)

북촌 거리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여술.

아무리 찾아도 서린의 행방이 보이질 않아 근심으로 가득하다.

s#12. 약방. (선달그믐날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서린이 방에 누워있고 그 옆을 목현이 지키고 서있다.

서린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는 목현, 그녀의 고운 얼굴에 잠시 얼굴이 붉거지는데...

이윽고 의식이 깨어나는 서린.

서린: 이곳은?

목현: 안심하십시오... 이곳은 안전하니.

서린:

묵현: 어찌하여 그자들이 처자를 해코지 하려 든 것이요?

서린:

묵현: 나를 믿어야하오. 처자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뿐이오.

서린: (판단이 서지 않는 듯 망설인다) 진정 도련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옵니까?
더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것이옵니까?

묵현: 물론이오! 나또한 어느 누구도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나를 믿으시오.

서린:

s#13. 저잣거리 / 유기전 투전판. (선달그믐날밤)

유기전에 밀실을 만들어 두고 투전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창가에 기대어 쓸쓸한 듯 밤하늘을 보는 여술.

플래쉬 백-

서린: 가까이에서 소중한 것을 두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애처롭습니다.

서린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창밖을 통해 저잣거리에 나타난 묵현과 서린이 보인다.

묵현: 그자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소?

서린: 제대로 왔습니다. (묵현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발견하고 놀라) 피가....

서린이 묵현의 팔을 걷어 올리자 칼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호들갑스레 지압을 하는 서린을 보며 묘한 감정이 생기는 묵현.

그러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자 서로 민망한 듯 얼굴을 붉힌다.

그리고 이를 마뜩찮은 듯 쏘아보며 나타나는 여술.

묵현도 여술을 발견하고 서로를 경계한다.

여술: 원하는 게 무엇이요?

묵현: 자네와 하던 얘기를 마저 하고 싶네.

여술: (무섭게 노려보며) 따라오시오.

s#14. 유기전 별채. (선달그믐날밤)

여술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묵현과 서린.

여술: (돌연 칼을 뽑아 겨누며) 무엇을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나... 이 아이는 내버려 두시오.

묵현: (코-웃음) 그래도 걱정은 되는 모양이지.

그런 자가 그 같이 위험한 일에 연약한 여인을 이용하려 했는가!

여술: 이용이라니!

서린: 그만들 두시지요.

묵현: 넌 좌상대감을 절대 해하지 못해. 대감은 네놈보다 훨씬 능구렁이거든.

여술: 금부도사께서 가로막지만 앓는다면 아무 문제없소이다.

묵현: 어찌하여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려 드는가!

여술: 그자들은 내부모와 죄 없는 이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자들이오!

묵현: 그런 넌 다른 줄 알아!

고작 복수나 한답시고 무고한 이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잖아!

그런 네놈이 극악무도하다는 그들과 무엇이 달라!

여술: (화를 억누르며) 난 죽어 마땅한 자들만 죽일 뿐이야!

묵현: 그래서 이 여인도 죽이려 하였어?

당혹감에 반박하지 못하는 여술과 영문을 몰라 하는 서린.

묵현: 이 여인을 죽이려 한 자들이 네놈과 한통속임을 내 모르지 않아.

너 하나 살고자 여인의 목숨을 끊으며 하고도 그런 말을 내뱉다니! 가증스러운 놈.

여술: 그것은....

서린: 설마... 그럴 리가요? 도련님, 아니지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지요?

여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여술.

서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이 빠져 버린다.

묵현: 너의 뒤를 봐준다는 그들을 만나야겠다.

가도치 (소리) 만나서 무엇을 하시게요?

불쑥 나타나는 가도치.

가도치: 최도사께서 왜 이리도 열을 올리시는지 잘 압니다.

부친께서 처한 상황도 잘 알죠...또한 저희가 도와드릴 방도가 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묵현: 그게 무슨 말이나?

가도치: 여술에게서 필체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친을 궁지에 몬 벽서와 토역정시의 답안 필체는 소론의 동국진체가 아닌 노론의 구양순체 이옵니다.

묵현: 그것만으론 증거가 될 수 없다.

가도치: 그 벽서와 답안을 쓴 진짜 필체의 주인이 나타난다면 얘기는 다르죠.

묵현: 무...무엇이...? 허면...

가도치: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서책을 건네며) 그자의 필체이지요.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일치할 것이옵니다.

묵현: (서책을 들여다보며 혼란스럽다) 이자는... 이자는 지금 어디 있는가?

가도치: 금부도사께서 저희를 돕는다면.... 저희 또한 그자를 내놓겠습니다.

묵현: (칼을 뽑아 목에 저는다) 어디 있냐고 물었다!

가도치: 재 목을 베어도 소용없습니다.
그자의 행방은 오로지 저의 주인만이 알고 제합니다.

묵현: 네놈들의 주인이 사적선생이란 자인가!

가도치: (눈살을 찌푸리며 서린을 흘린다) 최도사께선 알아선 아니 되는 분입니다.

서린:

가도치: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술: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가도치를 쏘아본다)

묵현: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가도치: 상화방에 가시면 박가라는 놈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자를 의금부 뒤 뜰 까지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묵현: 의금부 뒤뜰? 무엇을 하려고?

가도치: 그것은 모르셔도 되옵니다.

묵현: 닥쳐라!
의금부 뒤 뜰 병기고에 들어가 화승총을 강탈하려는 속셈을 내 모를 줄 아느냐!

가도치: (히죽) 지금은 온 나라가 나례의식을 행하느라 그곳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옵니다.
우린 그저 화승총 몇 자루 얻어 가면 그만이옵니다.

묵현: 그것으로 또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가도치: 부친을 구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이로운 것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묵현: (갈등하다 결국) 좋다, 내 직접 의금부로 들어가 네놈이 원하는 것을 빼내오지.

서린: 나으리 그리하여선 아니 되옵니다.

묵현: 허나..... 필체의 주인을 데리고 있는지 내 어찌 믿겠는가!
가서 네놈들의 주인에게 전하게 내가 의금부에 다녀오는 동안
그자를 데리고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총을 내어주지.

가도치: 좋습니다... 내 가서 그리 전하지요.

묵현, 밖으로 나간다.

서린: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저분을 이리 이용하다니요!
(따지듯 여술을 쏘아붙인다) 이것이 도련님께서 말하는 대의입니까?!

여술:

서린, 밖으로 뛰쳐나간다.

s#15. 유기전 밖. (선달그믐날밤)

쫓아 나와 서린을 붙잡는 여술.

여술: 어딜 가느냐?

서린: 이거 놓으십시오, 도련님께서선 저 또한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술: 당치도 않다.

서린: (한플 꺾이며) 도련님께서 이렇게 까지 변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술: 그것은....

묵현이 불쑥 다가와 서린의 팔을 잡아끌며....

묵현: 나와 함께 갑시다. 이자는 가까이 하면 해로운 자요.

여술: (묵현의 팔을 잡아채며) 그 손 놔라!

묵현: 네놈이야 말로 더는 괴롭히지 말로 물러서!

서로를 무섭게 쏘아보며 신경전이 오가는 두 사람.

서린: 이러지들 마십시오.

여술: (묵현을 쏘아보며 보란 듯이 명령조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 거라.

서린: (갈등하다 애써 매정하게) 저는.... 떠날 것이옵니다.

여술: 뭐...? (뜻밖의 대답에 할 말을 잃는다)

서린: 더 이상 도련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안이 뱅뱅한 듯 힘이 풀리는 여술, 결국 팔을 놓는다.

서린: 송구하옵니다...도련님....

여술: 대체...이자가가 무엇이기에....?

서린: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옵니다.

묵현을 따라나서는 서린의 뒷모습에 그저 허망하게 바라만보는 여술.

서린도 그런 여술이 안쓰러울 뿐이다.

s#16. 저잣거리. (선달그믐날밤)

묵현의 뒤를 따르던 서린, 조용히 멈춰서더니....

서린: 나으리.... 저는 이만 좌상대감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묵현: 그건 아니 되오.

내, 백부장에게 은신할 곳을 마련하라 할 것이니 우선 그곳에 가 계시오.

서린: 돌아가지 아니하면 도련님께서 의심할 것이옵니다.

묵현: (서린을 뵈히 보며) 흑.... 저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오?

서린:

묵현: (한숨) 그렇구려.... 그러하였어.....

서린: 나으리, 송구하오나 도련님을 도와주십시오.

허면 저 또한 나으리의 부친을 구명할 방도를 구해오겠습니다.

목현: 방도라니?

서린: 대감댁에 들어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목현:

서린: 나으리, 가도치 그자의 뜻대로 해선 아니 되웁니다. 믿어선 아니 되는 자입니다.

목현: 나또한 그리 할 마음이 없소.

서린: 허면....?

s#17. 운종가거리. (선달그믐날밤)

가도치가 서둘러 길을 나서는데 그 뒤를 누군가 밟고 있다.

그는 바로 목현, 가도치의 뒤를 미행한다.

s#18. 삼청동 북문 근처. (선달그믐날밤)

한참 끝에 인적 없는 곳에 멈춰서는 가도치.

목현도 주변에 몸을 숨기고 지켜본다.

한성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그곳..... 잠자코 누군가를 기다린다.

<시간경과>

한참이 지나도 미동조차 앓는 가도치를 지루하게 지켜보던 목현.

이때 누군가의 기척소리에 엎드린다.

어둠속에서 드디어 나타나는 누군가.

가도치가 예를 갖추 맞이한다.

사적선생임을 직감하고 정체를 알아내고자 다가가지만 어두워 보이질 않는다.

점점 다가가 정체를 확인하려는 찰나.

뜬금없이 나타나 목에 칼을 겨누는 곽주부.

곽주부: 여기서 무엇 하는 것이냐?

목현: (난감함에) 그...그것이....

자칫 일을 그르칠 듯싶어 순간적인 힘으로 곽주부를 제압하는 목현.

곽주부: 네놈이....

목현: 잠시만 얹전히 있게.

저항하는 곽주부를 포승줄로 묶은 뒤 서둘러 나와 보지만

가도치와 사적이 보이지 않아 당혹해 하는 목현, 우선 행방부터 쫓고자 비탈길을 내려간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된 곽주부는 포박을 풀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이를 숨어서 지켜보는 누군가.

s#19. 비탈길. (선달그믐날밤)

허둥지둥 한참을 찾아 헤매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는 묵현.

s#20. 다시 삼청동 복문 근처. (선달그믐날밤)

곽주부, 포박을 풀고자 몸부림치는데.... 숲에서의 바스락 소리에 멈칫한다.

곽주부: (긴장) 웬 놈이냐?

숲속에 잠잠히 있는 누군가.

곽주부도 바짝 긴장한다.

잠시 뒤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며 다가오는 사내.

그는 좀 전에 가도치와 함께 있던 바로 그자이다.

어둠 탓에 정체를 알 수 없으나 곽주부 만은 그의 얼굴을 알아본다.

그런데 곽주부는 그와 면식이 있는 듯 안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칼로 찌서 넣는 사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 자를 뵈히 보는 곽주부, 끝내 숨을 거둔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내.

뒤 늦게 묵현이 돌아와 곽주부의 죽음을 발견하곤 하얗게 질린다.

조심스레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털썩 주저앉는 묵현.

혼란스러움에 슬퍼할 틈도 없이 군졸들의 등장에 일단 자리를 피한다.

s#21. 유기전 별채. (선달그믐날밤)

여술, 투전판 한 켠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희락, 술을 한 병 내려놓으며...

희락: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올 것인데 데운 술을 마시다니...

세주불운이라.... 자네는 설술은 데우지 않는다는 말도 모르는가!

여술: 설.....? 부모의 님을 위로조차 못한 불효자가 어찌 남들처럼 설을 맞이한단 말인가!

희락: 이 사람아, 우리라고 명절조차 즐기지 말란 법은 없네.

여술: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술을 들이킨다) 내 주체에 명절이 가당키나 한일인지....

자네야 말로 어찌 이래 사는가?

임금도 서자출신 또한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하였고 자네아버님은 역관이시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터인데.

희락: (픽-) 관직은 무슨..... 난 지금 이대로가 좋으이...

장안의 색주가에서 나보다도 소문난 파락호에 팔난봉이 또 있는가!

여술: (싱겁게 웃는다)

희락: 서린이는 자네에게 무엇인가?

여술:

희락: 서린에 대한 마음을 내 모르지 않아.

부모의 복수도 좋으나 그렇다고 목숨을 불사 하진 말게.

개똥위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하였네..... 자네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지 않은가.

여술:

s#22. 진대감 댁. / 기방. / 갈대밭. (선달그믐날밤)

-마당에 지퍼놓은 불씨도 점차 잦아드는 가운데...

툃마루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는 서린, 심란한 듯 근심이 가득하다.

-기방에서 쓸쓸함에 술을 마시는 여술.

-갈대밭에 앉아 역시나 슬픈 얼굴의 목현, 광주부의 피가 묻은 손을 뻗어 보고 있다.

세 사람의 모습을 차례로 보이며 선달 그믐날 밤도 점차 지나간다.

s#23. 정월 초하룻날. (아침)

붉은 빛의 태양이 떠오르며 새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첫 해를 맞이하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인다.

s#24. 진대감 댁. 별채 툃마루.

툃마루에 앉아 까맣 잠이 들어있던 서린도 해가 떠오르자 눈을 뜬다.

태양빛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는 서린.

때마침 까치가 날아와 지저귄다.

서린은 기분이 상쾌한 듯 미소를 머금는데....

진대감: (불쑥) 청참으로 까치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올해는 풍년이 들려는가 보구나.

서린: (당혹감에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청참* 새해첫날 맨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 길흉을 점치는 풍습.>

진대감: 허나 앞날이란 것이 점괘처럼 훤히 보인다면야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만.....

(뼈있는 어투) 매사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더러는 신중치 못한 것도 유용할 때가 있는 법이지.

서린:

진대감: 바람이 살천스럽구나....

유유히 사라지는 진대감의 뒷모습에 눈을 떼지 않는 서린.

s#25. 신당 대청마루.

정월 초하룻날..... 명절을 맞아 경건하게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
다들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다복해보인다.

<인서트>

진대감의 사랑방에 침입한 서린이 병풍 뒤 방바닥 밑을 뜯어내느라 분주하다.

집안의 어른인 진대감에게 세배를 하는 친지와 가족들.

진대감: 현대.... 문안계집은 어디에 가고 안 보이는 게냐?
차례가 되었는데 왜 안보여? 어서 찾아오너라!

종복들 서둘러 찾아 나선다.

<인서트>

바닥의 비밀금고에서 껌함을 찾아내는 서린, 그곳엔 각종 문서 따위들이 들어있다.

s#26. 사랑채 앞마당.

서둘러 사랑채를 빠져나오던 서린, 사람들이 몰려오자 껌함을 대청 밑에 숨겨둔다.

종년: (나타나) 여기서 뭐하는 가 어서 오게!!

난처함에 끌려가는 서린.

s#27. 신당 대청마루

진대감 앞에 벌쭈미 서서 당혹해하는 서린과 이를 재밌다는 듯 바라보는 종복들.

진대감: 뭐하느냐? 어서 하지 않고.

주위눈치를 보며 어쩔사리 세배를 하는 서린.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힘겨워한다.

서린: 새...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버....님.....

급기야 하나 둘 킁킁 웃으며 흥겨워하는 사람들.
진대감도 피식- 웃음이 내뿜어진다.

진대감: 오냐~ 너도 서방 잘 보필하고, 시부모님 잘 뵈시고, 올해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

시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알겠느냐!

서린: 네...네.....

진대감: (세뱃돈으로 묵직한 엽전꾸러미를 던져 준다) 옛다~!

세뱃돈을 받고 기분이 묘해지는 서린, 엽전뭉치를 물끄러미 바라만 본다.

진대감: 왜 그러느냐? 세뱃돈이 적은 것이야?

서린: 아니옵니다. (돈을 받아 챙긴다)

진대감: 내가 한 덕담은 돌아가서 네 아씨께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서린: 예....대감마님.

진대감: 여봐라~ 문안제집에게 한상 크게 차려주고 돌려보내 거라.

종년: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대감마님.

진대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구나....어서들 성묘 갈 채비를 서두르거라.

종년을 따라서 조용히 물러나는 서린, 심사가 복잡한 듯 진대감을 빤히 쳐다본다.

종년: 수고했네... 배 터지게 한상 받아먹고 우리 제집종들끼리 도소주나 질펀하게 마시세.

서린:

s#28. 목현의 집 대청마루.

목현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내외가 조촐하게 차례를 지내고 있다.

진대감 댁과는 사뭇 다른 침울한 분위기.

장남인 목현이 제상에 술을 놓고 절을 올리는데....

느닷없이 내금위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목현: 무슨 일인가? 지금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것이 안 보이는가!

내금위: 내 최도사에게 전 할 말이 있어 왔소이다.

내금위종사관이 앞서서 뒤뜰로 향하자 그 뒤를 목현이 따라나선다.

근심 가득한 목현의 어머니.

이윽고.... 들어서던 백부장이 내금위 군사들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

s#29. 뒤뜰.

내금위: 어젯밤 좌상 댁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하던데, 칼까지 뽑아들고 큰 싸움을 벌였다고.

목현: 사소한 오해가 있었을 뿐이네.

내금위: 한성부의 주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소.

(피 물은 포승줄을 건네며 의심스레) 의금부에서 쓰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목현: (애써 당혹감을 감추며 멀쩡한 척)

내금위: (의증을 살피며) 살해된 그자와도 닮았다고 들었는데....혹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있소?

목현: 아...아니... 보지 못하였네.

내금위: (여전히 의심스레 즐기며) 지금 조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아시오?
소론이 역모를 일으키려 노론의 세력들을 하나 둘 참살하고 있다.
또한 최도사가 그 자객이라더라.

목현: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내금위: 전하께선 조정에 피바람이 부는 것을 원치 않으시오.
그러니 더는 설치고 다니며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하시었소.

목현: 허면, 내 아버님은 어찌 되는 것인가?

내금위: 그것은.....(잠시 뜸) 곧 참수를 할 것이요.

목현: 뭐....뭐라! 그럴 순 없다!!

내금위: 최도사,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는가?
더 이상 휘젓고 다니며 사태가 불거지면 부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요.
이선에서 끝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임을 왜 모르시오!

목현: (이를 악문 채) 닥쳐라! 무엇이 최선이란 말인가!!

내금위: 내말 똑똑히 들으시오!

남은 가족들마저 몰살당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암전히 지내야 할 것이요.

냉정히 사라지는 내금위.

이어 백부장이 다가온다.

백부장: 저..저자가 뭐라 합니까?

목현: (분노에 치를 떨며) 백부장..... 지금 당장 나장들을 불러 모으게.

백부장: 예?

그리고 모퉁이에 숨어서 묵묵히 엿듣고 있는 목현의 어머니.

s#30. 목현의 집 대문.

서린이 껌함이 든 붓짐을 들고 들어선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집안.

서린: (종복에게) 여보시오, 최도사님께선 집에 아니 계시오?

종복: 잠시 출타하셨는데.... 어찌 그러시오?

서린: (난감하다)

s#31. 상화방.

서린이 안을 기웃거리는데 희락이 나타난다.

희락: 어인 일이나?

서린: 도련님께선 어디에 계시옵니까?

희락: 글썽다.... 왜 그러느냐?

서린: 그것이..... (붓짐을 풀어 괘함을 꺼내 보인다) 좌상대감이 숨겨두었던 것들입니다.
중요한 물건인 듯 하여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혹, 아시겠습니까?

희락: 이것은 토지와 여각의 주인을 증명하는 문서들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도통 모르겠는지) 모르겠구나, 그저 문서일 뿐인 듯한데.....

서린: (실망하며) 도사 나오리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꺼라 여기었는데....

희락: (번뜩) 잠깐!

희락, 서류가 들어있던 괘함에 귀면문양을 유심히 살핀다.

<귀면*귀신의 얼굴을 그린 장식. 잡귀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사례 끝이나 대문 문고리 등 장식으로 쓰인다.>

희락: (뭔가 잡히는 것이 있는 듯)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서린: ?

s#32. 상화방 밖.

마침 지나던 천달을 불러 세우며...

희락: 여보게... 내 은밀히 알아보라던 가도치 그자의 은거지가 어디인가?

천달:?

s#33. 옥사.

옥사에 마주서있는 묵현의 어머니와 아버지.

묵현父: 차례는 별 탈 없이 잘 치루었는가? 이럴 때 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야.

(애써 웃어 보이며) 조상님께 술이라도 한잔 올렸어야 할 것인데 꼴이 이래봐서.....

묵현母: (말없이 눈물만 흘린다)

묵현父: 지난저울에 의주에 계시는 큰형님께 보리쌀을 좀 꾸었네....그것을 꼭 갚아주시게
문갑에 토지문서가 있을 것이니 처분을 하면 요긴하게 쓰일 것이야.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어... 어머니가 어렵사리 무언가를 건네는데... 독약이 든 약병이다.

희미하게 웃으며 약병을 받아 쥐는 묵현의 아버지.

묵현母: 미안해요, 대감....

묵현父: 제넘치 마시게, 난 괜찮으이... 그저 좀 더 앞서 가는 것뿐이잖은가.

그보다 부인에게 무거운 짐만 남기는 것이 심히 걸리는 구려....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를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바라보는 아버지.

s#34. 목현의 집 뒷마당.

목현과 그의 수하들이 병장기들을 챙기고 있다.

백부장: 나오리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파옥을 하시면 역당이 되는 것이 옅니다.

목현: 강요는 않을 것이니 원치 않으시면 빠지시게.

백부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해 미치겠다)

동생: 형님, 저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목현: (픽-) 책방에서 글만 파던 네가 뭘 하겠다고...

넌 제수씨와 어머님을 뒤흔치고 의주 큰아버님께 가 있거라.

곧 아버님과 함께 뒤를 따를 것이다.

목현母: (불쑥 나타나) 그럴 필요 없다.

목현: 왜 이제야 오시는 겁니까? 지체할 틈이 없으니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목현母: 난 아무때도 가지 않을 것이다.

목현: 어머니!

목현母: 허니 너도 그만 두거라!

목현: 그리할 순 없습니다. 어찌 아버님을 저리 허망하게 보낸단 말입니까!

목현母: 그만 두래도!! (차분한 어조로) 네 아버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다.

목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현母: 네가 지금 파옥을 한다 치면 우리가문은 어찌되겠느냐!

네 동생과 처...그리고 어린조카들은 또 어찌 되겠느냐 말이다!

목현: (불길하다) 무...무슨 일이 있는 것이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목현母: 네 아버님은 가문의 안위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신 것이니...너도 이제 그만 하여라.

목현, 불현듯 짙이는 것이 있는 듯 허둥지둥 뛰쳐나간다.

s#35. 전옥소 앞.

목현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마침 명석에 덮인 시체 한구가 실려 나온다.

설마하면서도 쉽게 다가갈 엄두를 못 내는 목현.

용기 내어 명석을 들쳐보는데... 결국 아버님의 싸늘한 주검을 확인하고 만다.

새파랗게 질리며 끝도 없이 굳어져 터져버릴 듯 한 얼굴의 목현.

다리 힘이 풀리며 주저앉아 허망함에 넋을 잃고 만다.

옥쇄장: 부친께서 남기신 서찰이옵니다.

목현: (받아 서 읽어 내려간다)

cut-in

묵현의 아버지가 옥사에서 서찰을 써내려간 뒤 독약을 먹고 자결하는 모습과 함께...

묵현父: (소리) 묵현이 보아라.

아비로써 실망을 주어 미안하구나.

허나 이 아비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내 그래도 자식들 잘 키워 그만큼 건사하였으니 조상님들 뵈면 면목이 있어 다행이구나.

묵현아..... 이제 넌 집안의 장손으로써 어미와 동생내외를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다 천천히 보자꾸나.

묵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 못해 몹시 괴로워한다.

s#36. 어느 여각의 입구. (해질 녘)

해가 저무는 시각... 천달과 함께 여각 앞에 다다른 희락.

대문 문고리에 귀면장식을 유심히 보는데 패함의 귀면문양과 일치하다.

s#37. 여각 안. (해질 녘)

희락이 천달과 함께 들어서는데.... 그곳에 가도치가 있다.

가도치: 뭔가? 날 미행이라도 한 겐가?

희락: 댁이야 말로 이곳엔 어인일이시오? 아니.... 댁의 정체는 무엇이오?

이곳은 좌상대감이 소유한 여각이잖소. 아니 그렇소!

좌상대감과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오, 아니 그보다.....

혹, 사적선생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오?

가도치:

진대감: (소리) 관계라.....

느닷없이 나타나는 진대감과 양서방.

희락 당황한다.

진대감: 관계되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

희락:

진대감: 사적이란 자는..... 사라졌네.

희락: 그게...무슨 말이오?

진대감: 내가 젊을 적에 산에서 늑대 한 마리를 쳐 죽인 적이 있지.

현데... 죽은 어미의 곁에 있던 그 새끼들은 두려워하긴 커녕 날 물어뜯을 기세더군.

새끼들을 살려두었다간 나중에 큰 후환이 되겠다 싶었지.

허나 난 죽이지 않았어.

대신 아랫것들을 시켜 사육을 시켰지... 이빨과 발톱이 더욱 날카롭고, 사납도록.

희락:

진대감: 그 다음엔 어찌하였을 것 같은가?

결국 다 자라 독이 바짝 오른 늑대를 집안에 풀어놓았더니...

내 아버지가 칩 질로 낳은 이복동생을 물어죽이더군.

희락: (어리둥절) 허..허면....

진대감: 사적선생은 없네.....굴이 있다 친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지.

섬뜩한 얼굴의 진대감을 보며 혼란스러움에 주춤하는 희락.

희락: 일부러 여술에게 접근했던 것인가? 그를 이용하고자?

진대감: 대업을 이루려면 충직하고 날랜 개가 필요한 법이지만.

상처 입은 짐승에 비할 것이 못되지

그 놈은 내가 풀어놓은 짐승이야.

이빨이 무더지면 독을마시고 라도 적을 물어뜯는 사나운 짐승.

희락: (치를 떨며) 어찌..... 인두검을 쓰고 그리 가혹한 짓을 꾸민단 말인가!

철전지 원수에게 이제 것 놀아난 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이때, 등 뒤에 서있던 천달이 느닷없이 희락을 베어버린다.

희락: (고꾸라지며) 너....? 너....

천달: 미안하게 됐소. 난 살주제다 뭐다 다 필요 없고, 그저 등 따습고 배부르면 그만이요!

천달이 재차 베어버리자 희락은 그렇게 허망하게 숨통이 끊어진다.

뚱한 얼굴로 이를 바라보는 진대감.

s#38. 투전판 별채. (밤)

밤새 술을 먹고 취해 잠이 들어있던 여술, 머리가 지끈하여 깨어나는데...

천달이 칼에 베인 상처에 피를 흘리며 뛰어든다.

여술: 무슨 일인가?

천달: 크....큰일 났소? 어서...어서 여길 피하시오....

여술: 무슨 일이라 하지 않는가?

천달: 당했소.... 최도사 그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

여술: 최도사.....? 희락... 희락은 어찌 되었는가?

천달: 그것이.....

s#39. 여각 안. (밤)

화면 디졸브 되어... 여술이 다급히 들어서면 그곳에 시신이 보인다.
다가와 그가 회락임을 확인하고 하얗게 질리는데....
회락의 품안에 볼록한 것이 있어 꺼내어보면 진대감 댁에서 훔쳐낸 문서들.
여술, 회락의 죽음에 분노가 치밀어 급기야 이성을 잃는다.

s#40. 사랑방. (밤)

방바닥에 함부로 열려진 비밀 금고를 보며 당혹해 하는 진대감, 문을 열고 소리친다.

진대감: 개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어리둥절 다가오는 양서방과 종복들.

양서방: 무슨 일이시옵니까?

진대감: 이곳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

종복들: (어리둥절 서로 눈치만 본다)

진대감: (성을 내며) 누가 이곳에 들어 왔냐 말이다!!!

종복1: 저... 아까 낮에 사랑채 앞에서 서성거리는 문안제집을 보긴 보았으나...

진대감: 무... 문안제집.....? (아차 싶은 듯) 지금 당장 그 계집을 잡아오너라!!
그 계집이 들고 간 물건을 찾을 때까지 절대 돌아올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복들과 사병들이 서둘러 뛰쳐나간다.

s#41. 주막의 봉숫방. (밤)

목현이 술잔만을 뚫어지게 보며 허망해하는데..... 여술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친다.
다짜고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여술, 삽시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두 사람.
무예도 아닌 분노한 짐승들끼리의 격렬한 싸움에 다른 이들은 모두 밖으로 물러난다.
죽일 듯이 뒤엉켜 싸우다 급기야 칼을 뽑아 여술의 목에 겨누는 목현.

목현: 또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트리기라도 했는가? 이번엔 내가 누굴 죽였단가?

여술:

목현: (흔들리는 여술의 눈빛을 감지하곤) 사실인가... 또 누군가 죽어 나간 것이야!

여술, 순간 품에서 칼을 뽑아 목현의 목에 겨눈다.
서로가 칼을 겨눈 채 노려보는 두 사람.
그러나 곧..... 여술이 먼저 흥분을 가라앉히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난다.

여술: (머리를 쥐어뜯으며) 회락이 죽었소... 나와 동고동락 한 유일한 친구였는데.....

목현:

여술: 현대 어찌 그리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소.

목현: (측은하게 보다 골몰히 생각하며) 살해된 곽주부의 모습도 지나치게 압전하였어.

난 오라를 느슨히 매었네... 암살자가 눈앞까지 오는데도 저항조차 않다니?

이는 필시 곽주부와 면식이 있는 자의 소행이 분명하네.

여술: (회락이 품고 있던 문서들을 꺼내 보이며) 죽기 전 이것을 지니고 있었소.

그곳에 간 연유와 관련이 있을 듯 하오.

목현: (문서들을 훑어보며) 이것은 좌상대감의....?

이 문서들은 상인의 거래를 구속하는 주인권이네

좌상대감은 경강의 주인권으로 한성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매점매석하여 물가상승을

부추이고 있지. (다른 문서들을 보며) 그리고 이것은 토지와 여각의 소유를 증명하는.....

<*경강(京江) 예전, 뚝섬에서 양화나루에 이르는 한강 일대. 한성으로 오는 물자가 운송되거나 거래되었다>

여술: 그 여각에서 회락이 숨을 거두었소.

목현: 허면.... 좌상이 그리했단 말인가?

여술: 그보단 왜 그곳에 갔는지를 모르겠소. 무엇을 알아내고자 굳이 그곳에 갔는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목현과 여술.

목현: 어째서....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여술: 우리 둘 모두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는 듯하오.

서로 눈을 마주치는 목현과 여술.

목현: 복수에 대한 분노가 자네의 생을 얼마나 옥아매는가?

여술: (뼈있는 어투) 최도사께서도 이젠 잘 아실 게요.

또다시 침묵하는 두 사람.

여술: 나와함께 그 칼을 뽑겠소?

목현: (잠시 고민하다 끝내) 자네 친구가 누구에게 당했는지부터 알아보세.

여술과 목현, 서로를 의지하는 동맹을 맺는다.

때마침, 숨을 헐떡이며 나타나는 서린.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 서로를 묵묵히 바라본다.

s#42. 저잣거리. (밤)

수하들에게 은밀히 지시를 하는 가도치.

이때, 서린이 혈레벌떡 뛰어든다.

서린: 도와주십시오.... 쫓기고 있습니다.

가도치: (사람들을 물린다) 무슨 일이나?

서린: 도련님은 어디에 계시옵니까? 희락은?

가도치: 나도 지금 찾고 있어.

서린:

가도치: 무슨 일이나고 묻지 않는가?

서린: 그것이..... 실은 제가 좌상 댁에서 무엇을 들고 나왔는데...

가도치: (번뜩) 그래? 그게 무엇이지?

서린: 뭘지는 모르으나 매우 귀중한 것임에는 분명 하였습니다.

저리 혈안이 되어 쫓는 것을 보면.....

가도치: 지금 가지고 있는가?

서린: 그것이.... 희락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을 들고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가도치:

서린: 희락을 만나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사 물건은 아닌 듯 싶습니다.

가도치: 알았네, 내 희락이를 만나면 찾는다 전해줍세.

능청스레 밖으로 나가는 가도치.

s#43. 여각. (밤)

희락이 숨진 여각에 몸을 숨기고 있는 여솔과 묵현.

여솔, 눈앞에 시신이 되어버린 희락을 보며 괴로워한다.

여솔: (늘어놓듯 낮은 어조) 어린 시절 난 몸이 작고 뼈가 여물지 못해 서원의 동기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소... 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싹박 질을 일삼다보니 친구가 없더이다. 그때 희락을 만났소... 그 역시 서출이라는 신분의 굴레에 친구라곤 아무도 없었지.... 우린 서로에게 유일한 벗이었소.

묵현: (지그시 보며 마음이 열린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친구로 남았으니 다행이네.

나 또한 광주부와는 막역지우였네.

헌데... 조정의 발을 담근 후 당파가 나뉘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 또한 전과 같지 않았지.

조정의 붕당정치가 극에 달해 서로를 음해하고 밀고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의 부친을 내가 직접 문초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의 부친은 숨을 거두었어.

당시에 난 내일을 하는 것뿐이라 스스로를 설득하였으나 어쩌면 나또한

저들을 내치고 내당의 권력기반을 채우고자 했을지도 모르지.

복수라....? 난 아직도 잘 모르겠네...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여솔:

이때, 누군가의 기척에 몸을 숨기고 긴장하는 묵현과 여솔.

그런데.... 그는 바로 서린이다.

여술: 여긴 어이하여 왔느냐? 내 은신하러 이르렀거늘.

서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는 가까운 이들을 저리 허망하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술: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동안 내 어리석어 널 사지에 두었으나 이젠 그리하지 않을 것이야.

서린: 제 한 몸은 스스로 지켜낼 것이니 제넘치 마십시오.

여술: 서린아....

묵현: 소리를 낮추시오. 누가 오고 있소.

세 사람, 몸을 낮추고 숨죽인 가운데....

이윽고 나타나는 누군가.... 바로 가도치와 천달이다.

희락의 시신 품을 뒤적여 미리 넣어 둔 진대감의 문서들을 꺼내는 가도치.

여술: 저....저놈이었어.... (분노에 치를 떨며 칼을 뽑으려 든다)

묵현: 진정하십시오... 범을 잡기위한 토끼일 뿐이요.

문서들을 챙겨들고 빠져나가는 가도치.

세 사람, 그의 뒤를 쫓는다.

s#44. 부용정. 수중누각. (밤)

한참을 쫓는데... 드디어 가도치를 기다리는 한 무리가 보인다.

몸을 낮추고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려는 묵현과 여술 그리고 서린.

그런데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다.

가도치가 문서를 건네는 자는 바로 진대감이다.

혼란스러움에 주저앉아버리는 여술.

묵현도 충격에 얼이 빠져있는데.... 서린이 화승권총을 꺼내들고 막무가내로 뛰어든다.

말릴 틈도 없이 진대감 앞으로 다가가 총을 겨누는 서린.

서린: 진이창 대감!!

술해 전 당신들의 간계로 역모의 죄를 쓰고 참수당한 함천부사 이시영대감을 알 것이오!

진대감: (의외로 담담하다)

서린: 내 오늘 대감의 숨통을 끊어! 지난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을 달랠 것이오!

뒤늦게 뛰어드는 묵현과 여술.

진대감의 수하들과 대치한다.

진대감: 최도사, 기어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가?!

묵현: 닥치시오! 죄상이 모든 배후이며... 또한 사적선생임을 내 모를 줄 아시오!!

(품안에 서책을 꺼내어 앞에 던진다) 이것은 저자가 나주벽서를 쓴 자의 필체라면

내게 준 서책이요.... 현대 그 주인권에 쓰여진 좌상의 필체와도 같더이다.

이제야 알듯하오. 그간의 모든 일들을 바로 좌상이 꾸민 짓임을!!

진대감: (싱겁게 웃는다) 무예만 출중한 줄 알았더니 눈썰미 또한 뛰어나구나.

묵현: 어찌 그리한 것이오?

사적을 빙자하여 살해한 참판과 여러 관료들은 노론의 사람들이었지 않소.

진대감: 제아무리 내 수족이라 할지라도 썩어 문드러진 살점은 도려내고 싶은 법이네.

제 몸에 스스로 칼을 못 대듯 내 손으로 내 사람들을 도려낼 순 없지.

여술: (얼이 빠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가?

내가 이시영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느냔 말이다!

진대감: 변하지 않았어.... 그때 날 보던 눈빛이나 지금이나 전혀.....

여술: (분노하며) 말해보라! 그간 네놈이 날 노리개처럼 부리며 얼마나 비웃었는가!

진대감: 날 원망하겠지... 허나 이 나라 조선의 안위를 위해선 희생이 따르는 법이네.

서린: (총을 겨누며 나선다) 그 입 다무시오!

진대감: 그 총 치우시게. 너는 그런 아이가 못 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러하였어. 나약하고 여린.. 그런 아이지.

(성큼 다가가며) 너의 눈빛엔 분노가 없다! 내가 날 미워할 순 있어도 죽일 순 없지.

서린: (주춤주춤 물러나며) 다....닥쳐라!

여술이 나서자 그 앞을 가로막는 양서방.

진대감: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와) 어서 이리 내놓거라.... 넌 나를 쏘지 못한다.

여술: 서..서린아!!

진대감이 다가가 총을 빼앗으려 하는데....

“탕!!”

총을 쏘고도 얼어버린 서린과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진 진대감.

그러나 총알은 진대감의 관자놀이를 스쳐 지났을 뿐이다.

잠시 뒤 침묵을 깨며 서린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병1.

그 순간 묵현이 칼을 던져 그들을 제압하며 달려든다.

그리고 서로 맞서는 양서방과 여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싸움이 벌어진다.

그 속에서 서린과 진대감만이 서로를 응시하는 가운데.....

묵현: (서린에게 다가와) 어서 여길 빠져 나갑시다. 어서!

묵현이 서린과 빠져나가려하는데 사병들의 반격이 거세다.

조용히 칼을 집어 드는 진대감, 이내 성큼성큼 다가간다.

등 뒤로 진대감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 못 채는 서린과 묵현.

여술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친다.

서린이 뒤늦게 고개를 돌리지만 이미 등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진대감.

쉬익- 바람을 가르며 칼이 베어지자 서린은 눈을 질끈 감는다.
이내 눈을 뜨면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술.
진대감의 칼을 대신 맞은 여술이 서린의 품에 안기며 쓰러진다.
놀란 표정이 하얗게 굳어버리는 서린.
그 틈에 사병들이 달려들자 목현이 이들을 제압한다.
목현의 거센 저항에 주춤 물러나는 사병들.

목현: 어서...여기는 내가 막을 것이니 그자를 데리고 여길 빠져나가시오.
이 길로 가면 백부장이 있을 것이요, 내 미리 이르었으니 도움을 줄 것이되다.

서린: 나으리....

목현: 어서, 지체할 시간이 없소.

여술을 부축하며 자리를 피하는 서린.
목현이 길목을 막아서며 사병들과 대치한다.

목현: 죽고자 하는 자, 한발 앞으로 나서라!!

목현의 기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병들.

진대감: 최도사.... 어찌자고 여 까지 왔느냐?!

내 경거망동 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했거늘... 이젠 돌이킬 수 없다.

목현:

진대감: 용기와 기백은 높이 사지만 미련하고 아둔하여 화를 자초 한 것이야.

네놈의 아비도 함부로 날뛰는 어리석은 자식 탓에 그리 허망하게 북망산을 오른 것이지.

목현: (분노가 끌어 오른다)

진대감: 네놈 따위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난 이 나라조선의 대본과 종사의 지체를 세우는 증신이다, 내말이 곧 율이고 법이니라!

목현: 닥쳐라 이놈!!

덤벼드는 목현, 양서방이 이끄는 사병들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나 목현의 강력한 검기에 뒤로 밀리는 사병들.
급기야 양서방 또한 밀쳐내며 진대감의 목에 칼을 겨누는 목현.

목현: 그 간활한 헛바닥으로 내 아버님을 함부로 오르내리지 마!

이성을 잃은 목현의 칼끝이 목에 와 닫는데도 진대감은 이상할 정도로 여유 있어 보인다.
이때.... 느닷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내금위 군사들.
목현이 어리둥절 당혹해 하다 뒤늦게 아차 싶은지 진대감을 보면....
비릿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진대감.

내금위: 설마 하였는데.....

최도사 그대가 소론의 사주를 받아 조정의 증신들을 참살해온 역당의 무리였단 말이오!

목현: (황당함에 진대감을 보며) 설마... 나또한 이용을 한 것이오?

진대감, 알 수 없는 섬뜩한 미소만을 흘린다.

머리를 얻어맞은 듯 얼이 빠져 버리는 목현, 무력하게 칼을 내려놓는다.

목현을 포박하는 내금위 군사들.

내금위: 대감, 괜찮으십니까? 소식 듣고 급히 오긴 하였으나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 했습니다.

진대감: 때맞춰 와주어 다행이네.

내금위: (목현 앞으로 다가와 노려보며) 전하께선 조정이 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였소.

목현:

내금위: 동이 트는 즉시 역당의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그 뿌리를 뽑아 낼 것이요.

목현을 끌고 가는 내금위 군사들.

목현은 분노와 두려움 섞인 얼굴로 진대감을 바라보며 끌려간다.

s#45. 갈대밭. (밤)

여술을 부축하며 도망치는 서린.

여술의 출혈이 심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서린: 도련님 정신을 차리세요!

뒤늦게 나타나는 백부장.

백부장: 나으리께선 어디제시고 너희들만 오는 게냐?

서린: 도와주십시오.

어느새 추격꾼들이 쫓아오자 갈대밭에 몸을 숨기는 백부장과 서린, 여술.

추격꾼들이 주위를 수색하자 숨을 죽인다.

서린: (울먹이며) 정신을 놓으시면 아니 됩니다.

여술:

서린: 다 그만 두어요... 아무도 못 찾는 깊은 산자락에 들어가 조용히 살자구요.

여술: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널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나는 구나....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잃고 혼자란 생각에 괴로웠지만....

그래도 곁에 남아주는이가 있어 기뻐고, 그게 너여서 더 기뻐다. 쿨럭! (피를 토한다)

서린: 도련님.....

백부장: 소리를 낮추게 이러다 탄로 나겠어.

서린: (여술을 애뜻하게 보며 이내 결심한 듯) 도련님을 부탁드립니다.

대뜸 갈대밭을 나가는 서린, 추격꾼들에게 스스로 붙잡혀 끌려간다.
그 틈에 여술을 부축해서 빠져나가는 백부장.

s#46. 전옥소. / 취조실. (밤)

전옥소를 찢을 듯 비명이 울리는 가운데....
손발이 묶인 채 심한 매질을 당하며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묵현.
너무 심하게 맞아, 보고 있는 옥쇄장들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이다.

내금위: 참으로 독종이구나! 배후를 감추고자 계속 입을 다문다면 살아서 나가기 힘들 것이야.
살고자 한다면 한 사람만 호명 하거라.

묵현: (희미한 웃음) 이놈아.... 내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그자를 잡아 드릴 것이고.
또 그자를 매질하여 또 다른 이름을 줄줄이 엮어 모두 죽일 거란 걸 내 모를 줄 아느냐!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내자꾸나.
이놈의 명줄은 너무도 질져 매질로는 쉽지 않을 듯하니, 칼로 내 심장을 찢어야 할것이다.

내금위: 입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 아직은 전덜만한 모양이구나.

멀쩡한 묵현이 못마땅한 내금위, 수하에게 지시하자 묵현의 어머니와 동생을 끌고 나타난다.
당혹감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묵현.

묵현: 어..어머니?!! 어머니!!

묵현母: (아들을 보자 눈물을 쏟으며) 묵현아.....!!

동생: 형님.....!!

내금위: (야비하게 비웃는다) 똥뜰 하느냐! 어서 끌고 가 배후를 캐 거라!!

어머니와 동생을 질질 끌고 가는 내금위 군사들.
묵현은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치며 이성을 잃는다.

묵현: 어머니!!! (광분하며) 이놈들!!

내 어머니와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는 놈은 그 누구고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놈들의 살가죽을 벗겨 저잣거리 개들에게 던져 줄 것이야!

내금위: (픽-웃는다)

묵현: (돌연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나오리 내 잘못했소이다.
제발 내 어미와 동생만은 풀어주소. 그리만 해준다면 내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할 것이니
죄 없는 저들은 내보내 주소.

내금위: (비웃으며) 천하의 최묵현이가 이리 추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허나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어.
재 입으로 토설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말거라!

묵현: 이..이보시오! 이보시오!

묵현이 애타게 부르지만 냉정히 나가버리는 내금위 종사관.
옥쇄장들의 매질이 이어진다.

s#47. 옥사. (밤)

묵현이 심한 고초로 의식을 잃은 채 끌려와 옥사에 내던져진다.
혼미함 속에 눈을 뜨는 묵현, 그제 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데.....
바로 앞에 동생이 시체처럼 널브러져있다.

묵현: 장현아 이놈...정신차리거라.... 장현아! 장현.....

순간 머리가 쭈뼛 서며 돌아보는 묵현.
그곳에 온몸의 살점이 찢겨져나가 쓰러져있는 어머니가 있다.

묵현: 어...어머니....어머니!

손발이 묶인 채 울부짖으며 엉금엉금 기어가는 묵현.

묵현: 눈을 떠 보십시오....어머니.....

묵현母: (희미하게 의식을 찾아) 무...묵현아....

묵현: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저 여기 있습니다.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어리석고 해망쩍은 못난 아들 탓에 어머니께서 이리 되셨습니다.
이 불효한 작위를 어찌하오리까.....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는 어머니.
묵현은 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을 펄펄 쏟는데....
결국 어머니는 스르르 눈을 감으며 고통에 가파르던 숨이 편안해 진다.

묵현: 어머니...아...안되.... 아니 되....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심장이 멎는 듯 입을 찢어- 벌리는 묵현.
소리가 내뿔어지지 않아 목에서 한참을 맴돌다 이내 터질듯 짐승처럼... “으아아아!!!”

s#48. 산채. 며칠 후 (낮)

햇살을 받으며 의식을 되찾는 여술.
누군가 상처를 동여매어 치료를 해준 듯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하는 가운데 백부장이 들어선다.

백부장: (툭툭거리며) 깨어났는가!

여술: 여...여긴 어디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요?

백부장: 며칠 동안 꼼짝 않고 그리 누워만 있었어.

도사나리께서 네놈을 돌보라 하시어 데려다 놓 것뿐이다!

여술: (떠오른 듯) 서..서린은? 서린은 어찌 되었소?

백부장: 내가 어찌 알아! 네놈 하나 숨기는 것도 목숨을 걸고 한 짓이야!

여술: 내... 내 가봐야 겠소! 서린이를 데려와야....(일어나려다 상처에 쓰러진다)

백부장: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다 이놈아! 그 몸으로 내려갔단 상처가 벌어져 죽고 말 것이야!

네놈 탓에 도사나리께서 저리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그리 허망하게 죽으면 안 되지!

여술:

s#49. 옥사.

수직군사로 위장해 안으로 숨어드는 백부장.

옥사에 갇혀 있는 목현을 찾아낸다.

백부장: (주변을 살피며 은밀히) 나으리 저 백부장이옵니다. 나으.....

넋이 빠져나간 듯 무기력한 얼굴로 앉아있는 목현.

백부장, 탄 사람처럼 변해버린 목현의 모습에 당황한다.

백부장: 나...나으리 어찌..? (울컥) 도대체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였기에....

(누군가 다가오자) 곧 다시 오겠습니다요, 그때까지 부디 몸성히 신색을 보존하십시오.

백부장, 황급히 빠져나간다.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대로인 목현.

s#50. 진대감 댁 솥을대문 앞.

아픈 몸을 이끌고 진대감 댁 주변을 기웃거리며 동태를 살피는 여술.

여전히 몸이 성치 않은 듯 힘들어 한다.

s#51. 산채. (정월 대보름날밤)

정월 대보름달이 흰 희 떠오른 날 밤.

백부장과 그 수하들이 병장기를 챙겨들며 긴장감이 흐른다.

백부장: (칼을 움켜쥐며) 지금이라도 원치 않은 놈들은 빠져!

오갈 때 없고 사람구실 못하던 우릴 데려다 이만큼 돌봐주신 분이야.

내 오늘 사내답게 죽어 볼란다!

다들 비장한 각오로 임하는데.... 조용히 나타나는 여술, 이내 칼을 집어 들며....

여술: 나도 함께 가겠소.

백부장: (여술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s#52. 전옥소 앞. (정월 대보름날밤)

빠르게 접근하며 전옥소를 살피는 여술과 백부장일행.

여술: 대보름이라 경계가 소홀하겠으나 그래도 신중해야 할 것이요. 계획은 있소?

백부장: 그런 거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

여술: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해도 전옥소 군관들이요.

백부장: 우린 의금부 꼴통 최도사 나으리의 수하들이야!

백부장이 앞으로 성큼 나아가자 자신만만하게 뒤를 따르는 나장들.

여술도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선다.

정문 앞을 지키던 군사들, 수상한 자들이 다가오자..... “웬 놈들이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달려들어 일순 제압하는 나장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군사들을 때려눕히며 옥사로 향한다.

s#53. 전옥소 앞마당. (정월 대보름날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군사들과 치열한 싸움.

생각보다 많은 군사들이 몰려 나와 시간이 흐를수록 백부장 쪽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다.

여술: 여기서 지체할 틈이 없소 어서 뚫고 나갑시다.

여술이 앞장서서 길을 트자 다들 옥사 쪽으로 향한다.

s#54. 옥사. (정월 대보름날밤)

일단 옥사로 들어서면 여술과 백부장.

나장들이 군사들과 맞서며 입구를 막아 보지만 그 피해가 크다.

백부장: (옥사 문을 부수며) 나으리 어서 가십시오.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동조차 않고 열이 빠져있는 목현.

나장1: 부장 나으리 저들의 수가 너무도 많아 더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백부장: (애간장이 툰다) 금부도사 나으리!

묵현:

여술: (보다 못해 다가와) 이보시오 최도사! 나를 좀 도와주시오.

서린이가 좌상에게 붙잡혀 있소... 내 그 아이를 구하고자 하오. 나와 함께 갑시다.

묵현, 그제 서야 서서히 정신이 드는지 여술을 바라본다.

서로를 응시하며 눈빛으로 대화하는 두 사람.

드디어 묵현이 일어나자 그의 검을 앞에 내미는 백부장.

어느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묵현이 칼을 집어 든다.

눈빛이 무섭게 돌변하며 성큼 나서는 묵현.

s#55. 옥사 밖 앞마당. (정월 대보름날밤)

묵현이 터벅터벅 선두에 나서자 그 기세에 물러나는 내금위종사관과 군사들.

이내 달려들지만 무섭게 빠른 묵현의 칼날에 여럿이 나가떨어진다.

검을 먹고 덤벼들지 못하는 군사들.

묵현, 칼날을 치켜들고 먼저 달려든다.

여술과 백부장도 다른 나장들과 함께 싸움에 뛰어들며 치열한 싸움.

인정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던 묵현은 결국 내금위 종사관마저 베어버린다.

팔다리가 베어져 여기저기 나뒹굴며 아비규환인 전옥소 앞마당.

잠시 숨을 고르는가싶은데.... 또다시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온다.

백부장: 먼저 가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막아보겠습니다.

백부장과 잠시 눈빛을 오고가는 묵현, 이내 돌아서서 여술과 함께 전옥소를 빠져나간다.

다가오는 군사들을 막고자 이를 악무는 백부장 and 나장들.

s#56. 진대감 댁 누마루. (정월 대보름날밤)

서린과 마주앉아있는 진대감.

진대감: 내가 원망스러우냐?

서린:

진대감: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미우냐?

서린: 밉지도, 원망스럽지도 아니합니다.

진대감: 허면?

서린: 가엸습니다.

진대감: 가엸다?

서린: 천하를 호령하고 주상도 어찌 못하는 원세를 가졌음에도 대감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되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진대감: (피식-웃지만 왠지 씁쓸하다)

서린: 아씨마님은.... 매우 울곧고 고운 분이시웁니다.

시댁에선 간혹 일이 서툴고 야무지지 못할 때도 있으나 잘 지내고 계시지요.

근자에는 자수슴씨가 일취월장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칭찬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친정 가는 길을 우두커니 바라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씨는..... 아버님을 몹시도 그리워하십니다.

진대감:

이때, 밖이 어수선했음을 알아차리는 진대감, 종복을 불러 세워....

진대감: 밖에 웬 소란인가?

종복: 자객이 들었다 합니다.

진대감: 자객?

s#57. 행랑채 앞마당. (정월 대보름날밤)

집안으로 들이치며 좌상의 사병들과 싸우는 묵현과 여술.

이어 양서방과 사병들이 몰려나와 이들을 포위한다.

묵현: 여긴 내가 맡을 것이니... 자넨 어서 가보게.

여술: 부탁하오.

양서방과 사병들에게 달려드는 묵현.

그 틈에 뒤쪽으로 돌아 사랑채로 행한다.

s#58. 사랑채앞마당. (정월 대보름날밤)

집안을 헤매며 서린을 찾는 여술.... 저 앞에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치는 가도치가 보인다.

여술: 이놈!! 날 잘도 이용하였겠다.

가도치: 이..이보게... 왜 이러나? 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네.

여술: 서린이는 어디 있나?

가도치: 나....난 모르네...

여술: 이놈이!!

이때, 화승총을 겨누며 나타나는 진대감, 서린을 방패삼고 있다.

여술: 서...서린아....

서린: 도련님....

진대감: 명줄이 짚기구나....이제 너의 쓰임은 다했으니 그만 죽어줬어야 했다.

여술: (분노에 어금니를 깨문다)

s#59. 행랑채 앞마당. (정월 대보름날밤)

사병들을 모두 제압하고 이제 양서방만 남은 채 대치하고 서있는 묵현.
양서방, 죽을 각오로 달려들지만 이윽고 묵현의 칼날에 허망하게 당한다.

s#60. 사랑채앞마당. (정월 대보름날밤)

진대감과 마주하고 있는 여술, 느닷없이 칼을 버린다.
당황하는 진대감과서린.
그 틈에 사병들이 여술의 목에 칼을 겨눈다.

여술: 이제 그만하고 싶소. 그 아이만 돌려주소.
두 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약조하리다.

진대감:

여술: 서린아... 이 몸쓸 놈이 널 이리 힘들게 하는구나... 내 어리석었어.
가까이에 소중한 것을 두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그럼에도 내색을 하지 못한 것은 행여 들키기라도 하여 그마저 사라질까 두려웠다.
이제 내게 남은 소중한 것은 너 뿐이지 않느냐!

서린: (눈물을 왈칵 쏟는다)

애뜻한 마음에 서로를 마주보는 여술과 서린.

진대감: 뭇들 하는 짓거리냐? 어디서 감히 알팍한 수작을 부리느냐 말이....

여술: (대뜸 진대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간곡히 청하오.
제발 우리 두 사람을 보내주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병쩡 진대감, 붙잡은 손이 느슨해지면서 서린이 풀려난다.
조심스레 여술을 향해 발을 내딛는 서린.
여술은 감격에 겨워 서린을 맞이한다.
서로 애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점차 가까워지는 여술과 서린.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와....

여술: (멋쩍게 웃으며) 내 농투산이가 되는 건 좋으나 발이나 제대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서린, 기쁨에 울긋하며 웃음이 나오는데...

“탕!!”

한발의 충성에 여술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화승총의 불을 뿜은 진대감.
그리고 그 총탄은 서린의 심장을 관통하였다.
놀라 당황하는 여술의 품에 안기는 서린.

여술: 서..서린아....

서린: 도련님....기박한 계집.....도련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제아무리 힘이 들고 두려워도 함께 하는 앞날을 떠올리면 마냥 행복하였습니다.

여술: (눈물을 펄펄 쏟으며 울부짖는다) 아니되....아니된다....

서린: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날을 꿈꾸며 편히 잠이 들 테니까요....

여술:

서린: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끝내 스프르 눈을 감고 만다)

여술: 아니된다.... 서린아.....

서린을 부둥켜안고 울부짖는 여술의 등 뒤로 가도치가 다가와 깊숙이 칼을 꽂는다.
칼이 급소를 파고들었음에도 서린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는 여술.
피를 토하며 점차 의식을 잃어간다.

여술: 아직....네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였어.....

결국 바닥에 고꾸라지는 여술.
피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서린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는다.
뒤늦게 나타나는 목현, 마당에 쓰러진 서린과 여술의 모습에 허망해 한다.
목현이 허탈감에 주춤하자 그 틈을 노려 덤벼드는 가도치와 사병들.
그러나 눈 깜짝 할 새에 가도치와 사병들을 베어버린다.
서로 눈을 마주보며 기 싸움을 하는 진대감과 목현.
이내 목현이 성큼 눈앞까지 다가간다.

진대감: (여전히 냉정을 잃지 않고) 최도사.... 나를 원망하는가? 내가 밍갸지?
허나...이제 어찌겠는가! 세상은 이미 내가 뜻하는 대로 되었어....

목현, 느닷없이 진대감을 베어버린다.
어리둥절 당혹해하는 진대감, 이내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다,
무표정한 얼굴로 이를 뺨히 내려다보는 목현.

목현: 어느 누구도 승자는 없소.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뿐이오.
진대감:

숨이 점차 잦아드는 진대감.

묵현, 죽은 서린과 여술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s#61. 언덕. (해뜰 녘)

언덕위에 망연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묵현.

이윽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백부장이 언덕을 올라온다.

백부장: (잠시 숨을 고른 후) 나으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묵현:

백부장: 조선은 이제 소론이 발붙일 수 없는 노론의 세상이 되었으니 당파싸움도 끝이겠죠?

묵현: (뜨는 해를 보며) 한때 노론과 소론도 같은 당파였네....

그때도 남인과의 당쟁에서 승리한 서인의 세상이 되어 더는 싸움이 없을 거라 하였으나
결국 둘로 쪼개지어 파가 나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네... 결코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야.

백부장:

붉게 떠오르는 해를 허망하게 바라보는 묵현.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한참을 서있다.

이를 뒤로 한 채 서서히 빠지는 화면..... 그리고 엔딩타이틀 오른다.

<끝>